



2015학년도 총여학생회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다시봄

2015학년도 총여학생회
포럼 기획단

세 상 을
다 시 보 는
페 미 니 즈

목차

여는 글		4 - 5p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수저 한 벌	공자	6 - 7p
몸 거울 속의 나 바라보기 가려진 몸 드러내기	이주연 한혁규	8 - 10p 11 - 17p
심리학 나랑 잘래요?	zero	18 - 21p
성폭력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페미니즘	베짱이	22 - 27p
연애와 욕망 진열된 욕망	각색	28 - 31p
문화비평 "그냥" 사랑, "진짜" 여자 이뤄지지 않는 동성애는 이제 그만 배제에서 피어나는 입체성 영화를 통해 다시 보는 페미니즘	영리 서동민 이프 ㅈㅈㅇ	32 - 33p 34 - 36p 37 - 38p 39 - 52p
여성혐오 음란물과 페미니즘이라는 호명	우산	53 - 61p
기획단 후기		62 - 68p

편집위원

공자, 이주연, 한혁규, zero, 베짱이, 각색, 영리, 서동민, 이프, ㅈㅈㅇ, 우산, 민정, 혜윤/esse

발행처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
2015 총여학생회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 매체팀

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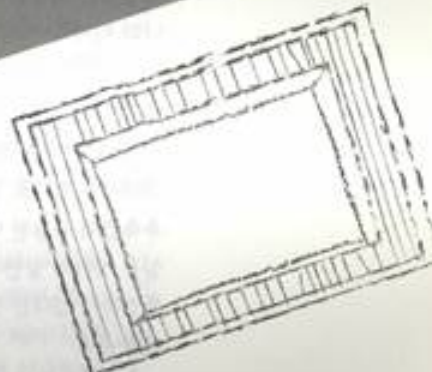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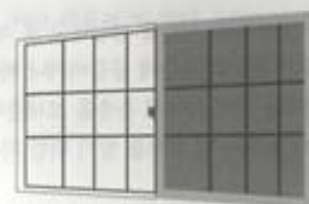
2015년 10월 5일

디자인

ㅈㅈㅇ (sy19425@naver.com)

인쇄, 제책

SD글로벌



세 상 을 다 시 보 는 페 미 니 즘

〈심야식당〉에 등장하는 '마스터'의 매력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에도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이하 세다페) 기획단 구성원들에게, 세미나와 매체/포럼 기획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공동체를 처음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진지하게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거나 대학에 온 이후에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세다페 기획단이 '일시적 현대의 공동체'로 경험되기를 바랐던 것이 기획단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은 분명 세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전될 수 없을 정도로 꺼칠한 표면처럼 다가오게 하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은 해방감이 되기도, 위로가 되기도, 또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나와 타자와 세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다페 기획단과 총여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매체를 발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에 글이 이렇게 많은데도 글을 써내고 게다가 인쇄까지 해버려서 이렇게 나무에 미안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필자로 참여한 기획단원들 각자의 고민과 설명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지도 않고 감히 추측건대 공통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글을 통해서 개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공동체로부터 세계로 확장되고 싶은 자아의 발현이 아닐까요.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되었던 세상에 있는 어떤 타인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다른 시공간에 처해 있더라도 나와 타자가 접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무척 설렙니다.

이 매체를 읽는 분들이 페미니즘을 알아가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누군가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각의 글들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갖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보내준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인의 진지함에 대해서 그만큼의 진지함으로 대해주는 것이 모두가 덜 상처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다페 매체가 담고 있는 12개의 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수저 한 벌〉에서는 우리 마음속의 수저 한 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주연의 〈거울 속의 나 바라보기〉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규범성과 대안을 자기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혁규의 〈가려진 몸 드러내기〉에서는 현대 사회의 몸 가꾸기에 대한 추동이 어떻게 몸을 가리거나 지우는지 분석합니다. zero의 〈나랑 찰래요?〉는 성차를 다룬 흥미로운 심리학 논문을 비교하며 소개합니다. 배짱이의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페미니즘〉에서는 어떤 신념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를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돌이켜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각색의 〈진열된 욕망〉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연애와 욕망을 낚설게 합니다. 영리의 〈'그냥' 사랑, '진짜' 여자〉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등장한 여성상을 통해 대중매체가 어떻게 여성성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지 통찰합니다. 동민의 〈이뤄지지 않는 동성애는 이제 그만〉은 〈나쁜 자석〉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에서 동성애가 어떤 식으로 다뤄져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이프의 〈배제에서 피어나는 입체성〉은 세 개의 애니메이션에서 다루는 '백합' 속성에 주목하여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h s h의 〈영화를 통해 다시 보는 페미니즘〉은 〈델마와 루이스〉와 〈바그다드 카펫〉이라는 두 개의 영화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산의 〈음란물과 페미니즘이라는 호명〉에서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지금의 여성혐오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세미나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포럼을 진행하고, 또 매체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원과 총여학생회 집행부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총여학생회 활동이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글을 써버렸고, 또 써야 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매체를 읽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2015년 9월 22일 새벽, 총여학생회실 컴퓨터 앞에서
2015 총여학생회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장 정혜윤 드림

수저 한 벌

곰자 (magic95519@naver.com)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 저녁은 꽤 오랜만이었던 거 같아요. 어머니는 큰 냄비에 된가를 끓이고 계셨어요. 어느새 다 끓여 온온하게 맛있는 냄새가 번질 때쯤 누나는 냉장고에서 물이며 밀반찬을 꺼냈고 저는 수저를 탁 놓고 있었죠. 그런데 놓다 보니 평소에 놓던 수저와 약간 다르게 생긴 것이 한 벌 있더군요. 못 보던 건데 새로 샀나 보다, 생각하며 별생각 없이 어머니 편에 그 수저를 놓았는데 식사를 하려고 앉으신 어머니가 수저를 자연스럽게 제 것과 바꾸시는 거예요. 이젠 네 거라면서, 누나도 당연하다는 듯 반응하기에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내 거냐고 반문을 했죠. 그러자 어머니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거 네 아버지 쓰던 거야." 딱 세 명이 앉으면 딱 차는 식탁이 문득 행해 보이는 식사시간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결국 한 자리가 더 있어야 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보시다시피 제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누나, 저 셋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정상가족'에 속하는 이혼가정이죠. 그렇지만 전 자라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을뿐더러 다른 가족과 내 가족을 비교하며 절 불행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불화를 고민거리로 털어놓는 친구들의 사연을 들어주며 우리 집은 화목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더 많아요. 그런 우리 집에 아직도 '아버지'란 그늘이 있다는 건 꽤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이 일로 꽤 찼아 보이던 우리 집에서 숨겨져 있던 '정상'에의 열망을 발견한 것이란 생각, 또 내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어 우리 집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걸까 하는 씁쓸한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의 '정상'에의 열망을 만든 건 정부나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라고 전 생각해요. 군대에선 한 부모 가정 출신의 병사를 '관심 병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학기 초 벌 이유 없이 상담실에서 절 부르기엔 이유가 뭘까 의아했었는데 문득 그전 주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했던 게 스치더군요. TV 광고에 나오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그것을 어머니가 호숫하게 바라보는 캠핑장에 있죠. 저는, 우리 가족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게 옆구리를 콕 찌르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상'이란 틀은 일정한 기준으로서의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을 그에 맞춰 재단하게 강요하는 폭력적인 것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제 친한 친구 중 하나는 단지 아버지가 일 때문에 외국에 오래 출장을 나가 게실 뿐 20여 년의 세월을 자기가 정상가족에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실상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절차만 안 밟았을 뿐 이혼 상태였던 걸 부모님의 전화내용을 듣고 알게 되고, 친구가 어차피 똑같은 거 왜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친구의 어머니는 "네가 올 때까지는 부모가 둘 다 있는 게 너에게 좋은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셨다고 하더군요. 이 대목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그 친구는 "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니 좀 미안하다"고 덧붙였지만 전 이 친구의 사연이 제 경우보다 훨씬 더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저 '정상'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친구 부모님이 감내했을 고통과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 친구가 느꼈을 허망함이나 배신감이 감히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갔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로 비극적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정상가족'은 전체 가구의 52.4%였다고 하고, 이마저도 2035년에는 4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¹⁾ 지금 한국사회가 부추기는 '정상'의 틀의 크기와는 간극이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어요. 별로 없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잘못된 것처럼 취급되던 '비정상가족'이 오히려 정상가족보다 더 많아질 거란 의미고요. 수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소위 '비정상'이라는 가족의 형태도 조손 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노력보다 여기저기서 굵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정상'이란 틀을 돌아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제 가족에 대해 잘 모르던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의 무의식 속에 있을 '수저 한 벌'을 생각하게 돼요. 뭐, 그게 제 편에 있는 게 안심이 된다면 놓으셔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다만 밥상머리에서까지 진짜 우릴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는 한 번 곱씹어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의 식탁도 안녕하시길.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2035>, '정상가족' 비율은 2010년, 2035년 각 해 부부+자녀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을 합산하여 구한 것.

거울 속의 나 바라보기

이주연 (ljs94081566@gmail.com)

1) 김주현 <외모꾸미기와 페미니즘> : 실제로 미학과 미, 미적권력에 관한 모든 개념은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도 동등한 여자보단 마른 여자가 예쁘잖아?

모든 것은 지인의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회에서 결코 말랐다고 칭할 수 없는 체격을 가진 나로서는 표정이 과히 좋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나는 불연속처럼 한 마디가 튀어나왔다.

그래도 마른 남자가 동등한 남자보다 무조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뭐, 이미지의 문제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 머리 길면 좀 이상하잖아? 뭐 여자애들 페디큐어 안하고 샌들 신으면 이상하다고 한다며. 둘 다 깔끔하지 않게 보여 지니까.

그와 헤어지고 난 뒤 지루하게 지하철을 기다리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거기엔 건강한 체격에 살짝 진한 피부를 가진 중간 머리길이의 여자 하나가 있었다. 옆에 붙어있는 여자 아이들의 화보가 문득 눈에 띄었다. 잘 관리된 피부와 군살하나 없는 몸매, 그리고 활기찬 포즈는 이 사회에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을 대표하는 것 같았다. 다시 유리에 비친 나를 보았다. 나는 보기 좋은가? 좀 더 파고들어서 나는 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환기하는가? 그렇다면 대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의 외양을 꾸미고 있는가. 아니 일단 저기 저 유리에 비친 사람은 내가 맞는가. 나는 오랫동안 내 상(像)을 노려보았다. 분하게도 페디큐어는 반쯤 벗겨져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들끓고 있다. '아름다운 여성'이나 '매력적인 남성'을 이야기 할 때마다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 간다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끼여이 노력하고 돈을 마련한다면 누구나 미인이 될 수 있다. 청단 헬스클럽과 다이어트 식품들, 온갖 화장품과 각종 패션을 소개하는 잡지와 각종 가격인하를 하는 성형외과까지. 아니, 검색만 해도 나오는 각종 트레이닝 동영상들까지.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 한낱 개성이나 취향을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인품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사실 남녀 모두 자신의 기준에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미적권리를 폄하해온 오랜 엄숙주의 역사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근엔 자발적인 미적권리의 발현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워질 것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변질된 것처럼 보인다.¹⁾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멸이 따른다. 악의 섹인(비록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농담에서부터 폭력적인 비난에 이르기까지 경멸의 수위는 다양하다. 이러한 경멸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도 미적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루고 싶은 문제는 미적 압력이 여성들에게 강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 신체, 감정, 일상 등과 여성을 함께 묶어 열등한 계열로 포함시킨 서구의 이성중심의

위계가 떠오른다. 당시 여성의 몸을 설명하는 범주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 도구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충분했다. 조선시대 남성들 역시 여성을 이런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다른 미적 이상을 상상했다. 궁녀나 기생을 묘사하는 수식어구가 자신의 정실이나 말머느리에게는 해당되길 바라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몸'이 되었고 남성들의 욕망과 목적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신체적 존재로 규정된 여성이 받는 미적 압력은 동일한 사회에서 남성들이 받는 미적 압력보다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이성중심주의가 해체되고 나서 몸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이 부상하고 있는 중에서도 '여성'과 신체의 동일시는 유지되었다. 특히 여성 신체에 대한 미적 압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즉 이 외모 지상주의가 여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이성 중심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지혜의 한계로 서술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가부장제 미학'의 유지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제 사회에 여성에게 행사한 미적 압력은 여성 스스로 미적 욕망과 권리를 실현하기보다는 가부장제의 남성적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대상화 하는 것이다. 여전히 그 미학은 우리 사회 속에 강건하다고 확신한다. 맥x 등의 각종 그라비아 잡지나 인터넷을 떠도는 '음란물'로 규정된 포르노그래피처럼 가부장제 미학에서는 여성이 미적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작년쯤 최고 몸무게를 찍었던 내가 흉대 거리를 걸어다가 술에 취한 남성이 나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얼굴도 뭐 같이 생긴 게 그런 다리를 드러내 놓고 걸어 다니고 싶냐?'(순화하느라 힘들었다) 하며 경멸을 내뿜은 적이 있다. 자주 사용되는, '넌'이라는 말은 나를 '인간'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위로 이 옷을 입었는지,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날씨가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멸어린 눈초리였다. 그 옷을 입은 주제적인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지 않으니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철저히 나를, 아니 자신 주변의 여성을 대상화하는 그의 의도에 나는 치가 떨렸다. '다리가 멀쩡한데 그럼 걸어 다니지 기어 다니냐?' 라는 말로 응수했지만 집에 가셔도 화가 진정되지 않았다. 이 일을 들은 부모님은 안쓰럽다는 듯이 나를 토닥이셨고 그 치에게 되바라지게 쏘아붙인 나를 칭찬하시면서도 한마디 덧붙이셨다.

그러니까 살을 빼렴. 살을 빼고 예뻐지는 게 최고의 복수잖니. 너도 외모에 신경 좀 써라.

내 그 이후 반응과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겠다. 확실한 것은 그 말이 꽤 충격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아까 언급한 조선시대와 같게 봐서는 안 된다. 여태껏 동등한 사회, 경제적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던 여성들이 사회에 비집고 들어와 영향력을 넓혀가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달리 남성들도 대상화와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최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014년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남성 화장품 시장이며, 시장 매출액 중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약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단순히 생각해 보면, 남성 화장품 5개 중 1개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셈이다. 비단 화장품에 이러한 관심을 쏟는 것은 패션이나 체형관리에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소리가 된다. 몸짱이 되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남성들을 심심찮게 보지 않는가. 각종 색시한 남성화보들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하지만 연예인을 제외한 머리 긴 남자나 여성스러운 악세사리, 펌프 향수를 쓰는 일반남성들이 쉽게 '게이'라고 지칭되는 사회현상을 보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전통적 가부장제가 남성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가부장제에서 객체화, 대상화되었던 여성이 받는 압력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정리하자면 여성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명처럼 치장과 다이어트에 몰두해야 하고 남성들 또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관리를 시작하고 멋진 양복을 입고 몸을 만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행위의 기반이 되는 미적 지향이 자기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자신의 특정 미적 지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강력한 미적 지향에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에서 원하는 미적지향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가 비슷한 몸매 비슷한 얼굴을 가지게 된다. ' 획일화'를 문제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현상이 우리 개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미적권리를 올바르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압력으로 변질된 미적 권리는 더 이상 주체성을 지닌 '권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체적 외모치장 방식에는 개인의 신체 이미지뿐 아니라 그 특정한 미적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적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그 개인이 가진 관점, 계층, 학력,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정치적 입장, 문화권, 취향 등이 어떠한가를 말한다.²⁾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미적권리의 행사는 미적 차원의 풍부함과 역동성에서 비롯되고 그러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획일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외모를 꾸미는 방식은 다양성과 역동성에서 시작한 미적 권리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 글을 쓰고 다시 전신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즉 가시적인 모습의 나이다. 그 상을 보는 다른 이들은 내가 안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본체인 나조차도 내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나는 내 몸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나는 왜 내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기준은 내부에서 오는가, 외부에서 오는가. 나는 어째서 나의 날씬한 동생들과 만나고 나면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을 바로잡는가. 열등감 때문이라면 그 열등감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저 거울에 비친 상(像)은 내가 온전히 주체로서 행사한 미적권리의 산물인가? 혹여나 가부장제도의 미의식을 기준삼아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은 아닐까. 가부장제 시선에 맞추어 내 신체는 이미 침탈당해 조각나 버린 것은 아닐까. 가부장제의 '성별'으로 이미지화된 신체를 강요받으면서도 그러한 체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차분히 나를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는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고 그것이 문화 속에 학습되어 무의식 속에 박혀버린 성적불평등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인 우리들과 그 불평등의 대상인 주체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 삶을 파고들어 있다. 나는 이를 반주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거울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울에 비친, 가부장제와 사회적 시선들이 덕지덕지 묻은 내 모습을 온전히 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말이다.

2) 김주현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p321

가려진 몸 드러내기

한혁규 (gurrb940127@naver.com)

1. 가꿔짐을 추동 받는 몸



▲헬스장 전단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한다. 아름다운 여성, 남성이 지나가면 다들 뒤돌아보기 일쑤다. 동기, 후배들과 과방에 앉아서 이야기 할 때도 걱정이라는 이름의 몸 평가는 이어진다. "요즘은 운동 안 하니? 살이 좀 찼 것 같은데." "오늘은 화장을 안 했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옷을 그렇게 입는데 연예라도 할 수 있겠나?" 사람들은 이러한 몸에 대한 평가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연예인들의 신체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 연예인은 얼굴이 어땠고, 저 연예인은 몸매가 어땠고 따위의 이야기 말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 속에서 이상적인 상으로 추앙받은 여성 연예인, 남성 연예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다가서야 하는 몸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몸을 이 '이상화된 몸'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성형외과 광고



▲방송중인 몸매가꾸기 프로그램 캡처

가장 아름답다고 '정해진 상'에 지속적으로 다가서도록 추동 받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꾸기 시작한다.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는다. 이 방법들로 한계가 있다면 성형수술을 받기까지 한다. 아름다운 몸을 열망하는 몸 가꾸기 열풍이 불면서 미디어는 몸매 좋은 여성과 남성이 등장하여 운동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외모 때문에 고통 받던 인물이 성형수술을 받아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등 몸 가꾸기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사람들은 몸 가꾸기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화면 속의 사람들을 선망함과 동시에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데 보다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몸 그 자체이다.

"모든 사람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몸 가꾸기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스스로의 몸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몸 가꾸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씌우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운동법과 성형의학의 발달로 몸 가꾸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성공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몸 가꾸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으로 재단되며, 우리의 몸은 가꾸짐을 추동 받는다.

2. 선택 받는 몸 개념

오랜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욕망은 발견된다. 동아시아의 역사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절세미인에 대한 언급과 유럽의 고대 그리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조각상으로부터 아름다운 몸에 대한 예찬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욕망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가꾸라고 말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긴 것과 관련이 깊다. 19세기가 시작하면서 등장한 자유주의는 이전까지 정해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져왔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유와 선택이라는 관념이 생기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관념적 토대 위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이다. 1970년대 다시 등장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현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양식을 통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결정했다. 케인즈주의로 대변되는 이전의 통제가 끝나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게 하였고, 세계화가 활발해지면서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장벽이 점점 낮아져 수익률이 높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는 이전보다 선택의 개념을 극대화한다. 물론 이 주체적 선택은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자본이 특정 사람들에게 편재되어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경우는 선택받는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받을 것을 통해 얻은 노동의 기회로 자본이라는 선택의 수단을 획득하는 변형된 전략을 취한다.

사람들이 위의 전략을 체득하게 되면서 이는 일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몸 가꾸기가 열풍이 된 것은 이러한 개입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더 나은 몸이라 생각되는 것으로 바뀌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즉, 자신의 몸에 대해 선택받는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고, 더 많은 선택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한다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몸 가꾸기란 자신의 몸이 더 많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선택하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는다.

3. 가려지는 몸

위의 전략에서 선택의 행위는 선택받음으로 가능하며, 결국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몸이 선택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몸 드러내기의 기회는 모두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다. 가려지지 않은 몸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몸으로 인식되어 드러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럼에도 드러낼 경우 주변으로부터 욕을 먹기 십상이다. 반면 가려진 몸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몸인 동시에 드러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드러낼 경우 자랑거리가 된다. 또한 여기서 가려진 몸이란 이상적인 몸이라 평가되는 사람의 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선 몸을 의미하며, 이는 곧 몸 가꾸기의 방향성이 일정한 곳에 수렴되어짐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에 접근하지 못한 몸들은 드러내지 않아야 할 몸, 아직 불완전한 몸으로 인식되며, 완전한 몸으로 인식되는 지점에 근접하고 나서야 드러내는 것이 허용된다.



▲방송중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캡처



▲자신의 과거사진을 부수는 연예인의 모습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스스로의 몸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들의 몸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진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한 방향으로만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묘사되는 방식은 가히 폭력적이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중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예로 들어보자.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느끼는 부위를 전연화한 이름으로 명명된다. 그리고 해당 부위는 신청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낙인찍히며,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성형수술 등을 통해 몸을 아름답게 만든 신청자가 몸을 전시하고 패널들과 관객들로부터 환호성과 박수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막이 따라붙는다. "이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와 동일한 메타포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한다. 게스트가 출연하는 경우 종종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연예인의 꾸며지지 않은 과거사진을 준비하고, 공개되기를 극구 거부하던 연예인이 사진을 박살내는 것으로 폭소를 자아내는 장면은 이미 익숙하다. 이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은 가려진 현재의 몸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가려지지 않은 과거의 몸이 현재의 '나'와 동일시되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즉,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된 몸들은 가려지는 것을 넘어서 지워지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SNS 게시물

몸을 가꾸는 일이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위의 문제는 보다 가속화되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SNS를 통해 성형이 스펙이 된 사회를 운운하며 기업이 좋아하는 외모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이 몸 가꾸기를 통해 스스로 상품화한 자신, '나 주식회사'의 판매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생존해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몸 가꾸기가 개인들 사이의 선택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면서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다. 이전에는 외모를 평가받는 주된 대상은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남성 역시 외모를 평가받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 여성은 '더 여성스러운 몸', 생물학적 남성은 '더 남성스러운 몸'을 요구받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의 양 극단만이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몸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각각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몸들은 비가시화되고 고정되어야 하며 지워져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 이는 대다수의 여성, 남성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가린다. 물론 최근들어 미디어는 여성 또는 남성의 양 극단에 있는 몸만을 비추지는 않으며, 다양한 몸들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주변화된 모습으로 소비될 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여성과 남성으로만 사람을 구분하는 '이원젠더체계'를 허무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더 여성스러운, 더 남성스러운 몸만을 강요하는 폭력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의 몸 가꾸기 열풍이 과연 누구를 배제시키고 어떤 몸을 비정상적으로 내몰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다.

4. 정체되는 논의, 여전히 가려지는 몸, 그리고 몸 드러내기?



▲ "여성의 몸은 전쟁터"

어이없는 댓글을 보며

□ 3.. 여자분들도 다 그러면서 원 외모지상을 따집니까 결국 열풍이잖아요 원저질방송이냐 님들은 안그러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쁜여자보면 좋은거고 님들은 돈많고 능력있고 잘생긴남자보면 좋은거랑 같은거예요 좀 작작하세요

▲ 한 웹사이트의 댓글

몸 가꾸기 열풍이 만들어낸 가려지는 몸들에 대한 논의는 이전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더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좋지 않나"라는 말로 외모평가는 정당화되고 몸을 가꾸는 것은 의무로 되돌아간다. 여기에 여남갈등의 요소가 덧붙는다. 오랫동안 외모평가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들이 "여성의 몸은 전쟁터(Your body is a battleground)"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강요하는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자 남성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여자들도 잘 생긴 남자를 더 좋아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몸을 가꾸어야만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결국에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채 논의는 정체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개인의 루념 정도로 격하되고, 그 목표물은 이전보다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전히 몸들은 가려지고 있다.

위의 "너도 똑같지 않나"라는 말은 뛰어넘어져야 한다.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문제 그 자체에 동의를 강제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한다.

또한 피해는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정체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귀 기울여 듣고 궁극적으로 가려져있는 몸들이 다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가서야만 하는 몇 가지의 모델이미지를 강요하는 것을 그만둬야하며 동시에 이 모델이미지를 깨뜨려야한다. 즉, 다양한 몸의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야한다. 'Models of Diversity'라는 영국의 한 NGO는 기존의 모델이미지를 벗어나 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몸의 이미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몸을 드러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몸을 적극적으로 가리도록 유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Models of Diversity의 활동은 보다 중요해진다. 모델이미지를 벗어나 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사람들의 몸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업이다. 또한 각각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의 몸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든 몸, 장애가 있는 몸, 성소수자의 몸 등 기존의 몸 개념에서 소외되고 가려졌던 몸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



▲ 기존의 모델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시도였던 장애인의 모습을 한 마네킹 전시를 통해서 Dove 사의 "Real Beauty Campaign" 몸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보는 시도였던 스위스 사회복지단체 Pro Infirmis의 "Because who is perfect?"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관념이 원인이 되어 몸에 대한 직접 비교가 시작되면서 '더 나은 몸'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가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꿔진 후에는 과거의 몸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꿔지지 못한 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한다. 그 피해자는 우리 모두이다. 이 글은 몸에 대한 이러한 매커니즘 전반에 대한 비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름다운 몸이라고 정의된 몸에 도달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의 미봉책이 가져온 것은 지속적인 문제의 증폭, 해결 없는 상태의 유지이다. 우리는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면을 쓴 신체에 대한 강요와 폭력을 그만두는 것이며, 나아가 몸에 대한 '더 나은'이라는 개념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두고 "어차피 모두의 문제다. 너만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라는 말로서 이를 '문제제기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논의도 진행될 수 없게 한다. 때문에 결론은 다르게 나아 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P . S .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이상적인 몸을 정해두고 그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현재의 몸 개념을 다양한 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적 차원의 것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에 영향을 준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체제이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다양한 몸의 상 만들기는 일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여기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단순히 체제를 바꿔내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욕망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현재의 몸 개념은 이러한 욕망을 근거로 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즉, 몸을 가꾸는 것은 분명 새로운 것이지만 그 근거로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생각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의 해결책은 현재의 체제에서는 몸들을 가려버리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말해버리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고민에서 위의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약하다. 다만 이 해결책이 보여주는 의미에 집중했으면 한다. 현재의 몸에 대한 생각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일상화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사회의 구조, 체제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깊게 침투하면서 작동한다. 때문에 위와 같이 일상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보려는 시도이다.

겉으로 보이는 몸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정상으로 인식되는 영역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정당화되는 상황은 배제와 차별의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화 되어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일상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일상을 바꿔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누구도 배제당하거나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믿음이 일상화 되는 사회를 희망한다.

참 고 자 료

기사

'가슴 실종녀' '모태 거구녀'... '메이크오버'를 어떻게 하지? [오마이뉴스, 14.11.12 22:08]

[정희진의 낯선 사이]외모주의와 사회적 개입 [경향신문, 2011-09-29 19:56:34]

20대 남자 취준생이 제일 많이 하는 성형수술은? [오마이뉴스, 14.07.14 14:35]

[뉴스&팩트]'성형고용부' 논란이 시사하는 것 [머니투데이, 2015.07.02, 10:40]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외모는쟁,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참세상, 2013.08.28 20:58]

단행본

김고연주, 『나 주식회사』와 외모관리, 『친밀한 적』, 이후, 2010.

엄기호, 『젠더와 사회』,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동녘, 2014.

한국여성민우회, 『동통해서 죄송합니까?』,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시선 찾기, 후마니타스, 2013.

나랑 잘래요?

zero (moombah10@gmail.com)

1) 위키피디아

2) Clark, R. D., & Hatfield, E. (1989). Gender differences in receptivity to sexual offer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2(1), 39-55.

3) 제프리 밀러. (2004) 에이팅 마인드 (김영주 역) 서울: 도서출판. (원서출판 2000)

4) 이 글은 Conley의 다음 논문에 많이 거대고 있다. Conley, T. D. (2010). Perceived Propos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Gender Differences in Acceptance of Casual Sex Off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309.

캐주얼 섹스 : 낭만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 간의 성행위.¹⁾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원나잇이라 칭해지는 것.

당신은 수업이 끝나고 연회관을 나서고 있었다. 당신이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유역점 기념관을 지나고 있을 때, (당신이 남성이라면) 한 여성 혹은 (당신이 여성이라면) 한 남성이 다가왔다. 당신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하고 눈여겨보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저기요," 그 사람이 당신을 붙잡았다. "또 종교군." 하고 당신은 생각한다. 어느 때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칠 참이었다. 그 때, 뜻밖의 말이 들려왔다. "학교에서 계속 봐왔었는데 제 이상형이어서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니 중앙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친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밤에 나랑 잘래요?" "네?" 당신은 놀라서 되물었다. "나랑 잘래요?" 당신의 귀는 정상이고, 잘못 들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당신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상황은 1989년의 Clark와 Hatfield의 실험을 재현한 것이다.²⁾ 실험은 위의 상황처럼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되었으며 캐주얼 섹스 제안을 하는 사람도 대학생이었다. 실험 결과, 70%의 남성이 섹스 제안을 수락했고 여성은 단 한 명도 수락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캐주얼 섹스 수락에 매우 큰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흥미롭고 자극적인 연구는 많은 논문과 교과서에서 인용되었으며 특히 70% 대 0%라는 극적인 차이는 성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 실험 결과는 성선택설 sexual strategies theory 을 지지하는 증거로써 사용되었다. 성선택설에 따르면, 짝짓기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쪽은 암컷이기 때문에 수컷들은 항상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 암컷은 짝짓기에 따른 기회비용(임신과 출산)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수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여기서 매력적인 수컷이란 암컷과 암컷의 아이들을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수컷이다. 반면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능한 한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자식을 낳아줄 것 같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원하고 단기적인 짝짓기, 즉 캐주얼 섹스에 훨씬 덜 까다롭다.³⁾ 성선택설은 Clark와 Hatfield의 연구에서 나타난 캐주얼 섹스 수락에서의 큰 성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캐주얼 섹스에서의 성차는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내재된 본능이 캐주얼 섹스 제안을 받았을 때 차이를 낳는 것일까? 캐주얼 섹스에서 여성들이 까다로운 이유가 자신의 자녀들을 더 잘 키울 만한 남자를 고르기 때문일까? 반면 남성들은 최대한 정자를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캐주얼 섹스에 까다롭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나름의 답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혹은 혼란을 키울 수도 있는) 한 연구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성선택설에 의해 가려졌던 부분들을 조명하고 주로 생물학적 차이로 설명되었던 성 차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럼 이만 서론을 마치고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Conley의 연구를 소개하겠다.

Conley는 Clark와 Hatfield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조건들을 추가하였다.⁴⁾ Conley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Clark와 Hatfield의 연구는 공모자가 직접 참가자(자신은 참가자라는 사실을 모르지만)에게 캐주얼 섹스를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참가자의 솔직한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몇 가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점을 가진다. 먼저, 참가자는 자신이 심리학 실험의 참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험에 응하게 된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캐주얼 섹스 제안이 성적으로 불쾌한 경험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섹스 제안을 수락한 사람이 뒤늦게 그것이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Conley는 참가자들에게 캐주얼 섹스 제안을 받는 것을 상상하도록 했다.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똑같다. 차이점은 단지 참가자가 아래의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신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때, 여성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학교에서 줄곧 봐왔는데 제 이상형이세요. 오늘 밤에 나랑 잘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밤에 시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 섹스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과 제안자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했다.⁵⁾ 앞으로 실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나올 남성과 여성 제안자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참가자들의 상상 속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가임을 앞서 밝힌다. 참고로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과거에 실제로 캐주얼 섹스 제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Conley는 캐주얼 섹스 수락에서 나타난 70%와 0%의 큰 차이가 제안을 받은 참가자의 성보다 제안을 한 공모자의 성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여성이어서 캐주얼 섹스를 꺼린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한 사람이 남성이어서 캐주얼 섹스를 꺼렸다는 말이다. 남성은 통계적으로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성병을 옮길 위험이 많을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성 제안자와 남성 제안자는 같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⁶⁾ 즉, 남성 제안자는 여성 제안자보다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캐주얼 섹스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남성과 여성 제안자를 똑같이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여성이 남성 제안자의 부정적인 특성 때문에 캐주얼 섹스를 거절했다면 여성 제안자를 남성 제안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어떤 설명이 옳은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성 제안자만을 고려했던 전 실험과는 다르게 제안자가 동성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즉, 이번에는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캐주얼 섹스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험 결과, 이성애자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 제안자가 남성 제안자보다 덜 위험하고, 더 따뜻하며, 더 높은 지위를 가졌고, 침대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 인식했다. 그리고 바이섹슈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캐주얼 섹스 제안을 더 많이 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제안자와 여성 제안자는 동등하게 인식되지 않으며, 남성 제안자는 섹스 파트너로서 덜 매력적인 상대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 제안자가 위험해 보여서 거절당한 것이라면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성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험성은 친밀도와 관련이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낯선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캐주얼 섹스 제안을 더 거절하게 된다. 하지만 친밀한 사람이 섹스 제안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성이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낮아져 캐주얼 섹스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참가자가 캐주얼 섹스 제안자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래 낯선 사람이 섹스 제안을 한다는 시나리오에서 낯선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유명인 중에서도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⁷⁾ 여성 참가자가 상상하게 된 매력적인 남성은 배우 조니덱이었고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은 부동산 거물 도널드 트럼프였다. 남성 참가자가 상상하게 된 매력적인 여성은 배우 안젤리나 졸리나 줄리였으며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은 코미디언 로잔느였다.



▲조니덱



▲도널드 트럼프



▲안젤리나 졸리



▲로잔느

나랑 잘래요?

5) Conley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캐주얼 섹스 제안의 수락과 제안자의 성격적 특성을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likely 의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extremely likely 의 7까지 정도를 나누어 측정했다. 캐주얼 섹스 제안자의 성격적 특성으로 성적 능력 sexual capabilities, 위험성 danger, 잠재적인 정신적 병 mental illness, 성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지위, 성적인 신뢰 sexual faithfulness, 선물 주기 gift giving, 따뜻함 warmth 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지위, 성적인 신뢰, 선물 주기, 따뜻함은 성선택설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6) Conley, 앞의 논문 p. 2.

7) 매력적인 유명인과 매력적이지 않은 유명인을 고르기 위해서 사전에 조교들의 자인이나 동료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여 5명의 매력적인 유명인과 5명의 매력적이지 않은 유명인들의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유명인들의 매력도를 다시 평가하여 가장 매력적인 사람과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았다.

8)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그룹의 CEO이자 CEO직을 겸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거물이며 TV 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이다. 2015년 6월 17일, 공식적으로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출처: 위키백과)

실험 결과, 성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명인의 캐주얼 섹스 제안에 대한 여성의 수락 정도와 남성의 수락 정도는 같았다. 이는 친밀한 사람이 낯선 사람보다 위험성이 낮아서 여성의 캐주얼 섹스 수락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명인을 매력 수준으로 나누어서 매력적인 유명인과 매력적이지 않은 유명인일 경우를 따로 살펴봤을 때도 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 참조).

Participant gender	Attractiveness level		
	Unknown	High	Low
Likelihood of agreeing to the sexual proposal			
Female	1.86(1.38)	4.09(2.16)	1.71(1.61)
Male	3.52(2.06)	4.16(2.56)	1.43(0.84)

▲[표1] 매력도에 따른 성관계 허락 여부의 성차

표1. 세로축은 참가자의 성별을 의미하며, 가로축의 Unknown은 낯선 사람, High는 매력적인 유명인, low는 매력적이지 않은 유명인을 의미한다. 표에 있는 숫자가 1이라면 섹스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즉 거절한 것이고 숫자가 2 이상이면 섹스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수락 가능성은 커진다. 숫자가 7이라면 섹스 제안을 100%, 기꺼이 수락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섹스 수락 가능성은 매력 수준이 High와 Low인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과가 성선택설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선택설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이 섹스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 성선택설은 남성의 목표를 자손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가능한 많이 퍼뜨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유명인일 경우에 여성과 남성은 같은 정도로 캐주얼 섹스 제안을 수락했다. 남성이 매력적이지 않은 유명인의 섹스 제안을 여성과 같은 정도로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로 성선택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들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매력이 없었던 것도 성선택설에 도전이 된다. 성선택설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지위나 자원을 보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잘 보살필 만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 유명인인 로잔드가 임신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서 남성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남성이 로잔드의 섹스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임신하는 나이를 지났기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력적이지만 로잔드처럼 아이를 낳을 시기는 지난 여성 유명인인 크리스티 브링클리를 캐주얼 섹스 제안자로 상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성들은 안젤리나 졸리의 섹스 제안을 수락한 것만큼이나 크리스티 브링클리의 섹스 제안을 수락하였다. 따라서 남성이 로잔드의 섹스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녀의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크리스티 브링클리

연구에 따르면, 캐주얼 섹스 제안자의 성적 능력이 제안의 수락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제안자의 지위나 안전성보다도 성적 능력이 뛰어난 정도가 캐주얼 섹스 수락을 가장 잘 예측했고 이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동일했다. 이는 쾌락 이론 pleasure theory 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쾌락 이론은 인간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쾌락을 줄 것 같은 제안자와는 섹스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 참가자들은 낯선 사람과 도널드 트럼프의 섹스 제안을 동일하게 거절했다는 것이고 남성 참가자들은 낯선 사람과 안젤리나 졸리의 섹스 제안을 비슷한 정도로 수락했다는 것이다(표 1 참조).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낯선 섹스 제안자를 떠올려야 하는 경우에 여성은 도널드 트럼프같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지만 남성은 안젤리나 졸리처럼 매력적인 여성을 떠올린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캐주얼 섹스 제안을 받았을 때 성차가 컸던 이유를 설명하는 좋은 단서이다.

앞서 말했듯이 캐주얼 섹스 수락에서의 성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캐주얼 섹스에서 발견되는 성 차이를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돌리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성적으로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오케이를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슷하지 않은가?

당신은 처음에 글을 읽으며 어떤 이성을 떠올렸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 좋다. 당신이 떠올린 이성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조니덱이나 안젤리나 졸리처럼 매력적인 상대였는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가? 언젠가 연희관을 나서며 기분 좋아지는(?) 그러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을 추천하며 글을 마친다.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페미니즘

신뢰했던 공간에서의 성폭력(gender violence)¹⁾ 마주하기

베랑이 (wyr1209@naver.com)

1) 아이리스 M.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개념 차용.

2) 후에 언급되는 '대미로 폭력 논란'을 sexual violence로 정의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sexual violence'로서의 성폭력이 아닌 'gender violence'로서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에 의하면 'gender violence'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제도(gender)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된다.

귀하의 젠더 감수성이 1% 향상되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의 성장배경이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었기에, 대학 초창기까지의 나는 젠더 감수성이 원지도 몰랐고, 가부장적인 남성중심 문화에 매우 익숙했으며, 여성젠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렇기에 대학 와서 처음 접한 페미니즘의 용어와 실천들이 나에게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다가왔다.

페미니즘이라던가 젠더 감수성에 관한 경험치(?)를 쌓았던 첫 계기는 선고단체에서 만난 지체의 호칭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지체는 '선배'나 '오빠'라는 호칭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시에는 그가 페미니스트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주장의 맥락들을 잘 몰랐기에 한 학기 내내 혼자 공공대며 '저기요...'라고 불렀고, 8개월 만에 본인에게 직접 어떻게 불러달라고 물어봤다. 그 지체는 나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더니 본인을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대답했다. 뭘도 모르고 했던 질문이, 그에게는 꽤 큰 의미였는지, 단체 클립에 호칭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감상이 올라왔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경험,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학번 권력과 나이 권력, 성별 정체성에 대해 페미니즘적으로 성찰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페미니스트 지체와 좀 더 수월하게 대화하기 위함이라는 사소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고, 수업도 들어보았다. 계기와는 별개로 페미니즘은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삶의 자리에 페미니즘 초대하기 & 어려움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 것은 맞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다. 자기계발 서적을 쌓아놓고 읽어봤자 결국엔 성공담론에 진입할 수 없는 것과 사회과학 서적 몇 권 읽는다 해서 신자유주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어려운 것처럼 페미니즘 또한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페미니즘은 학문적으로나 운동적으로 주변화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끌어들이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었다.

나에게 있어서도 페미니즘은 수많은 삶의 지침 중 하나였고, 다른 것들에 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온연중에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억압이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소소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으며, "이 정도면 뭐...", "라고 가볍게 넘어갔던 적이 많다.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스스로와 주변을 성찰하며, 적극적인 변화의 자세를 결심하게 된 것은, 신뢰하고 가치를 두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겠느냐마는 적어도 이 공간들만큼은 '성폭력'과는 거리가 멀거나 멀어야만 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 공간들은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곳이기도 하며,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에 대해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던 공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공간으로 말하자면 바로 교회와 진보진영이다.

교회나 진보 진영 안에서의 성폭력이 문제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므로 새삼 놀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로서 다루기는 쉽지 않았다. 그것은 특정 대상을 향한 비난을 넘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할 액션을 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뢰했던 공간들의 배반

대학생활 동안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지했던 A 단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생각과 행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은 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사건에 대해 알려진 동료 또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얘기 되는 과정인 최근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가 결정된 자리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앉아 모여 있었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도무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에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 얘기를 들려준 동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냐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그 동료가 했던 말로 인해 다시 차분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동로는 본인도 너무 화가 나고 사건 주변인에게 따지기도 했지만, 악의 행위자에 대한 명목적 비난은 동시에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재생산에 동참했던 본인을 책임 당사자로부터 제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비난은 비난으로 끝나게 되고, 구조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게 되기 쉽다.³⁾

보통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와 (권력관계라는) 구조적 맥락보다는 사건 외에 당사자들과 주변인과의 관계, 감정들을 먼저 살피게 된다. 위의 반응처럼 마치 나는 그러지 않을 사람처럼 제삼자에서 듣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막상 나 또한 구조에 가담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관계 그대로를 보고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믿는 다 면 서 어 떻 게 ... ? *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는다면서 그렇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오히려 요즘 교회가 보여주는 행동들에 비추어 봤을 때 "믿는다면서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라는 판단이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라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 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로 윤리적 기능이 자주 언급되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요구받거나, 인정되는 윤리성이 있었고, 이는 교회 밖에서 인식하는 윤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착한 성품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한 모습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업 신비도 조사에서 목사는 하위권에 머물게 되었고, 교회라는 공간은 이익집단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 비리나 교회 세습과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교회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과는 별개로, 신앙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게 중요한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라는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여기서 교회란 단순히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비리가 적어도 내 주변에서 내가 인정한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이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앙'의 이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목회자나, 교역자들의 비리와 잘못을 사랑과 용서의 가치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 매체에서 보도되는 "몇몇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나 또한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시선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가 매우 권력 지향적이며, 가부장적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살필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라는 구체적인 직분에 따라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위계는 권력관계를 양산하는데, 권력의 우위를 점하는 직분에는 주로 남성들이 앉아 있다. 이와 같은 질서와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경우, 교회 지도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 해석에 권위를

3) 아이리스 M. 영, 197p-202p

부여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면, 피해자 본인 또한 그 폭력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피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진실은 은폐된다.⁴⁾

교회 안에서의 성 문제는 이전부터 간간히 지적되었지만,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09년 A 교회의 담임목사가 성도를 추행한 사실이 기사로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청년들 사이에서 스타 목사로 명성이 자자했고, 다양한 저서 활동도 했던 터라 A 교회 담임목사의 성추행 파문은 세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담임목사는 주변의 압박에 사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으며, 아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실 여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 잘못을 감싸고도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갔고, 그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 당시의 나에게 그들은 신앙적으로 결함이 있는,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그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아직도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은 가해자를 매우 존경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다. 사건을 아는 이들 중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믿는다는 집단도 똑같구나. 오히려 교회의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성폭력 문제를 진리라는 이름의(사실상 남성 중심적인) 해석 틀로 은폐하는구나.⁵⁾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과 나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 정 의 를 말 하 면 서 어 땀 게 . . . ? *

예수의 제자 된 삶은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급진적 movement를 요구한다고 배웠다.⁶⁾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부정한 권력과 불의한 상황에 맞서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나 초대 공동체 사람들은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지금의 언어로 반동본자에, 운동권으로 여겨졌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 삶을 동경하고 따르고자 하(나 쉽지 않음을 절감하는) 사람으로서, 신앙과는 별개로 학생운동이나 진보 진영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이나,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배우고자 노력했다.

특히 좋아했던 진보 논객으로는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의 저서를 쓴 한운형이 있는데, 그의 글쓰기 방식이나 통찰력이 나를 매료시켰다. 특히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386세대를 평가하는 대목에서 원정 출산과 기러기 아빠의 모습을 놓고, 386이 이념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위 현장으로 나가게 한 욕망과 아이를 외국에서 출산하고 싶은 욕망이 비슷하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부분⁷⁾에서는 사이드 한 병을 그대로 들이킨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또 한 번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좋아하던 칼럼니스트로 자주 언급을 했던 터라, 지인이 공유한 링크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천진난만하게 "어머, 저 이 분 참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그 사실은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실 완전 나쁜 놈이었네!!"라는 도덕적 비난과 함께 애지중지했던 그 사람의 책을 갖다 태울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여친이 페미니스트라는 점, 그 또한 여성 영화제 패널로 참가한 적이 있다는 사실들로부터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상의 영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더 보게 되었다.

권력과 거대 구조를 대상으로 운동이나 저술 활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순수한 이념과 정의의 수호자라거나, 구조 밖의 전지적 작가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다. 내가 위와 같은 착각에 자주 빠지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렇기에 더욱 진보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 여타의 부정한 사건들을 마주하는 것이 이념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온다.

과거 학생운동은 국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운동 내부의 폭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구조가 결국 국가 권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모순점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운동사회의 한계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2000년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가 운동사회 안에서 벌어졌던 성폭력들을 폭로한 사건은 진보진영의 성인지 수준과 더불어 운동사회 안에서 타자화되었던 여성의 위치를 드러냈다. 2002년 당시 정당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부적인

요구에 대해 "해일이 아는데 조개나 줌고 있다."고 발아친 어느 진보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성폭력 사건이 진보 진영 내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진보진영의 혹역사는 이보다 더 무궁무진하기에 진보 논객의 데이트 폭력 논란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대학생활의 반이나 그 사람을 동경한 시간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여전히 서로의 진술을 놓고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진보 논객의 데이트 폭력 논란을 어느 무개념 '진보 마조'가 일으킨 개인적 물의로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기엔 문제가 너무 쉽게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진보 진영 내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젠더문제를 다른 여타의 문제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서 진정한 사회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지에 까지 확장하여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 우 리 사 이 에 어 땀 게 . . . ? *

성폭력은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연인관계나 가족이라는 공간이 어쩌면 성폭력과 가장 가까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인관계 또는 가족관계와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쉽게 사유하지 못한다. 심지어 위 사례의 피해자는 이런 방면에서 나름의 공부를 하고 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었음에도 명확하게 폭력을 폭력이라 규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가 "때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연인이었고, "맞지 않는 것보다 그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⁸⁾기 때문이다.

일전에 부모님께 조심스레 내가 성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아닌 이상 네가 유혹한 부분도 있을 테니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대답해 적잖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보편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이다.

A 단체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체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나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제삼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사건의 사실관계보다는 사건 외의 가해자와 피해자, 제삼자들의 정치적 위치, 관계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덮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나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쉽다. 그리고 구조 밖의 개인으로서 구조를 논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매우 손쉽게 사유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A 교회 담임 목사 성추행 사건이나, 옛날 진보 진영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들을 대할 때가 그러했다. 그러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이거나,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주변인일 때,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며, 얼마만큼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되었다.

A 단체의 성폭력 사건, 진보 논객의 데이트 폭력 논란, 이 두 가지 사건은 일상과 운동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성 평등 담론이 얼마나 주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소하다고 여겼던 억압들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내게 구체적으로 각인시켜 준 계기이다.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을 다양한 성폭력에 대해 "우리 사이에 설마...", "우리 사이에 어떻게...?"와 같은 반문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성폭력이야." 라는 인식이 전제로서 확인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한 사건이기도 하다.

'정 치 적 책 임' 으 로 서 의 페 미 니 즘

모순의 실체를 변함없이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개념의 토대가 된다. 비판과 자기비판이란, 공통된 목표라는 대개를 중심으로 연합한 개인들이 차이와 한계, 즉 부정적 측면을 의식적으로 이용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진보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표현하자면 "악재를 화재로 바꾸기"이다.

(벨 훅스 『페미니즘』 중, 「20세기 혁명과 진화」 인용)

어떤 집단이든 이념과 실재의 간극에서 모순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집단이 그 모순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직면하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퇴보의 길이 엇갈리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있다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람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 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욕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④ "솔로몬이 2천 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나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

⑥ "여당에게 주는 배필 하와가 있었듯이 너는 내 주는 배필이라.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주는 배필은 아니다"

또한 가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본인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는 다음이 있다.

① "다윗을 책망한 미갈은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긴다"

② "피해자는 오히려 마귀가 씌어 목회자를 모함하고 있다."

③ "여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4)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에서 발간한 저널의 특집으로 실린 「교회 내 성폭력」의 내용에 따르면,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은 대부분 "목회자가 여신도나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 횟수도 대부분 1회성 피해이기보다는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 피해 동기는 개인 상담이나 심방을 빙자한 경우, 안수나 안찰 등 치유행위를 빙자해서 일어나는 경우, 입신 등 종교체험을 빙자한 경우가 있으며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종위원제나 안마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5) 성서는 다양한 경우에 자주 오용되어 해석되곤 하는데, 성폭력과 관련하여 「교회 내 성폭력」에서 언급되는 예시로는 다음이 있다.

① "아굽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레아는 아굽의 첫 부인이지만 아굽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 너는 아굽을 삼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② "애연동산이 어떤 곳이나? 그곳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다. 대답하면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③ 베드로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장의

성폭력

된다는 점이다. 내가 신뢰했던 집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데이트 폭력 논란 등은 그 집단 안에서 여성이 주변화되어 왔던 현실을 보여줬고, 그것이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과 모순적이라는 점, 무엇보다 그 현실과 모순에 나 또한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속한 집단의 모순을 직면하는 책임의 실천을 위해 나에게 페미니즘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계급과 인종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페미니즘을 얘기하지 못한다고 했던 벨 훅스의 주장처럼, 한편으로는 반대로 페미니즘을 배제한 채 계급과 인종, 그리고 (교회와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평등과 정의의 문제 또한 온전히 다룰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모순을 극복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더라도 하나의 실마리 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이 공동체 내에서 통하는 것은 가해자가 산악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악 공동체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가부장적인 해석 논리는 더욱 교묘하게 작동한다.

6)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에 따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자가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 예수는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그 당시 권력에 도전하는 발언을 했고, 결국 당시의 지배체제인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초대 공동체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했던 행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주권을 거부하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도전이었다.

7) 한윤형,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참 고 문 헌

윤귀남, 「교회 내의 성폭력」, 『한국 여성 신학』, 64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2006.

아이리스 M. 영,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이후, 201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울아카데미, 2003.

마커스 보그, 『기독교의 심장』,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2011.

벨 훅스, 『페미니즘』, 모티브북, 2010.

한윤형,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크로스, 2013.

'한윤형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트위터 글, <http://mydefinition.tistory.com/65>

8) <http://mydefinition.tistory.com/65>
'한윤형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에서 이를 두고 그녀는 본인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처했다고 표현한다.

진열된 욕망

각색 (paperlifer@naver.com)

한국 사회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사용된다. 먼저 많은 공간에서 욕망은 금기시되며 욕망을 드러내는 이들은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흔히 '욕망'과 관련된 단어로 욕심, 욕정, 야욕 등 부정적인 단어가 따라오고, 치정 살인, 사기, 유괴, 폭행 등 정말로 많은 흉악 범죄와 반 윤리적 행위의 원인으로 욕망이 항상 지목되는 것을 보면 그런 맥락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욕망을 지닌 존재로서 욕망을 부추김 받는다. 조금의 과장을 덧붙여 한국인들은 욕망이 대부분의 가치를 집어삼킨 시대에 살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개인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며, 그것을 열심히 뒤쫓는 삶은 훌륭한 삶으로 그려진다.

욕망은 사회 속에서 여러 요소들과 결합하거나 서로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매우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특정 욕망은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때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결정된다. 필자는 수없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국가, 도래집단 등 많은 집단의 내외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에 집중함으로써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며,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한계와 부족함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필자의 연애 경험에 기반을 둔 글이기에 필자가 경험하지 못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더라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부족함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연애와 사랑, 위치, 권력,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린다.

허락 받는 욕망과 그렇지 않은 욕망

대부분의 인간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연애를 경험한다. 사랑과 연애가 당연시되고 소위 연애 '강권' 시대에 대한 담론은 물론 문제적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다. 현대 인생은 짧고 그리 녹록지 않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틈날 때마다 그 팍팍하고 힘든 삶에 달콤한 단비를 내려줄 '사랑의 오아시스'를 찾아 킬리만자로 산을 오른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동화 등 많은 매체들에선 낭만적 사랑과 순수한 연애, 꿈만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 또한 그 오아시스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렇듯 환상으로 둘러싸인 연애관계는 앞서 언급한 모순적인 이중적인 성격의 욕망이 작동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데 매우 적절한 공간이다. 낭만적 사랑, 순수한 연애와 관련된 욕망이 일상적으로 다뤄지는 방식, 학습되고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욕망들이 허락되고 제약받는지를 잘 드러낸다. TV를 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음악을 들어보라. 우리는 단 하루라도 사랑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처럼 사귀냐?
난 여자보다 남자가 키가 커야 예쁘더라
여자보다는 남자가 돈이 좀 더 있어야지?

....

위와 같은 말들은 필자가 연애를 하면서 들었던 말들의 일부이다. 이 말들은 한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하는 것, 연애 관계에서 여남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보통'의 가치판단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연애 관계에서 특정한 형태의 욕망만이 '옳은' 방식의 것들이라는 인식을 넓고 강하게 공유한다. 그렇게 분류된 욕망들은 낭만과 순수의 탈을 쓰고 권력을 획득하며, 성별 이분법 담론 등과 함께 욕망들 사이의 구분을 더욱더 강화한다.

이렇게 권력을 획득한 왜곡된 욕망의 잣대가 위험한 이유는 첫 번째, 개인의 특정한 욕망(혹은 지향)이 누군가(사회)에 의해 허락받고 제약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공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는' 공간들에 비해, 낭만과 순수의 옷을 덧입은 연애관계에서의 욕망의 잣대는 타인에 대한 폭력과 왜곡된 심판을 부추기고 감춘다. 또한 사회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특정 욕망만을 허락하는 기준은 국가권력, 성별, 외모, 경제력 등 다양한 권력과 자본과 결합해 한 개인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정상-비정상의 굴레로 가득 차 지배 권력의 입맛에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이러한 욕망의 잣대는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의 욕망이 그 잣대를 구성하는지와 특정 욕망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잣대의 위험성을 더욱더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상적, 낭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욕망들은 단연컨대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욕망들이다. 연애 관계에 성(gender)이 위치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특정 행동과 사고가 기대될 때, 그 기준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과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남성의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하얀 얼굴과 볼면 날아갈 것 같은 몸의~
남자답게 리드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남편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내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더치메이를 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념녀~
원래(생물학적인 이유로) 번덕이 심한 여자에 잘 맞춰주는~

...

위의 발화들은 그 지배적 담론과 권력을 아주 약한 수준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그 지배적 권력과 담론이 모두 남성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남자들이 남성이라는 성(gender)을 공유하고, 그것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부장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인 구조가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성은 분명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욕망이 허락받을 수 있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도적인 권력과 담론으로서의 남성 기호에 따라 구성된 욕망은 연애관계 거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는 필자와 필자의 애인이 다이어트와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흔히 연애를 하게 되면 이성에게 어울리는 몸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며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 요구는 더욱 확대, 강화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필자의 애인도 다이어트와 몸매에 관심이 많았다. 한 사회에서 이상적인 몸매는 아주 다양한 권력의 총위에서 구성되며 모든 개인에게 요구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전제되는 이성애적 연애관계에서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강한 요구와 억압을 받게 된다. 164m에 45kg, 168m에 48kg... 등 여성들은 가늘고 마른 몸과 함께 그에 아주 모순적인 볼륨 있는 소위 플라밍고 몸매를 요구받는다. 물론 남성들도 식스팩과 떡 벌어진 어깨 등 많은 것을 요구받지만 앞서 언급한 남성이 주도적인 권력과 담론을 통해 구성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욕망은 분명 여성들을 강하게 옥죄다. 한국 사회에서 몸을 가꾸지 않는 개인은 게으르고 한심한 이들로 치부된다. 하지만 몸을 가꾸지 않는 여성은 (남성의 기호에 따른 욕망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파괴하고 방치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듯 몸에 대한 욕망처럼 남성 권력 아래에서 더욱 은밀하게 욕망을 구성하는 공간이 있다. 이성애적 연애 관계 속 욕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성관계가 그 공간이다. 일단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스킨십과 더불어 성관계 자체에 대해 보수적이고 억압적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남성 중심적 권력과 담론은 성관계라는 행위와 그에 대한 욕망을 왜곡, 변질시킨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관계 중 애인을 지배하고 마치 물건인 마냥 다루고 싶어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행위와 역할의 위치를 가지려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부분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고, 또 많은 경우 스스로를 그런 위치로 설정하게 된다. 물론 여성에게 강하게 요구되는 순결 이데올로기, 여성의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많은 요소가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분명 남성 권력과 담론에 의해 구성된 '욕망'도 그 못지않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앞서 설명한 욕망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욕망이 권력을 획득하고 지배적인 담론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 먼저 남성들이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평가, 회화화하고 소비하는 과정이다. 최소한 필자가 경험한 남성 공간들은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를 적나라하게 소비하고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않고 있는 남성은 매우 드물며 그러한 남성은 정상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치부된다. 필자도 위와 같은 과정 중 일부분 혹은 대부분을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틀어지고 부풀려진 욕망은 이성애 연애관계 내에서 수시로 폭발한다.

연애관계가 사적인 것이라는 환상도 왜곡되어 구성된 욕망에 크게 이바지한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었지만, 연애 관계에서 애인끼리 있었던 일이나 경험들은 공적인 영역과는 분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탈을 쓴 욕망이 연애관계에서 폭발하더라도 그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될 뿐 사회적, 공적, 법적인 문제로 공론화될 수 없다. 이렇듯 폐쇄적이고 왜곡된 연애 관계라는 공간은 남성들의 욕망이 지배적인 힘을 얻기에 매우 적당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반대로 낭만적인 연애관계에서 허락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욕망들도 매우 다양하다. 그 욕망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적 사고와 기준에 벗어난 것들이며, 성격, 태도, 습관, 성욕 등 연애 관계 내에서 상대방을 인지하고 사유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서 '여성스럽지 않다.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욕망들은 모두 제약받는다. 또한 지배적인 남성 중심적 권력에 반하거나 도전하는 욕망들도 대부분 옹기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제약받는다. 이상적이지 못한 게으른 몸, 지배적인 남성의 위치를 전복시킨 여성 중심적인 성관계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 '누가 경제적인 지출을 더 많이 하는가(혹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도 그와 같은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와 결합해 흔히 김치녀, 된장녀, 어장관리녀 등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번주되고 다른 논의로 파생된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지리한 논쟁이 결과적으로 연애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요구받는 남성과, 경제적으로 구매되는 위치를 요구받는 여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위치 설정에 의해 매우 고통받고 필자도 많은 고민을 가지지만, 왠지 남자인 내가 돈을 더 내야 할 것 같은 이 생각에는 분명 경제력을 통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구매하고픈 남성(gender)들의 욕망이 깔려 있다.

대표적으로 몸 가꾸기, 성관계, 경제적 지출 등의 부분에서 필자는 분명히 남성 중심적인 욕망이 지배적으로 기능한다는 걸 느꼈고, 그것이 왜곡, 심화되는 과정들이 또 다른 개인에게는 명백히 폭력적이고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흔히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최소한 특정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만 그러한 것들이었음을 필자를 포함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욕망을 허하라 는 욕망, 죄책감을 씻어보겠다는 욕망

필자는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연애를 하는 중이다. 연애 기간 또한 오래되었으며, 욕자가 흔히 '낭만적이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연애 관계 일지도 모르겠다. 필자와 애인은 나를 이러한 욕망이 권력과 담론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 있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서로 관련된 이야기도 편하게 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서로의 욕망에 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서로 고려하고 있으리라 믿어왔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연애 관계에서 대부분의 이들은 서로를 욕망한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플라토닉 한 욕망뿐 일 거라는 환상은 기실 거짓이다. 성애적(sexual) 욕망이 당연하며 절대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 또한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필자는 연애를 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한 육체적, 성적 욕망을 느꼈고 여러 방식으로 그 욕망을 드러내거나 숨겨왔다. 그리고 최근 나를 서로의 욕망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상대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면서

난 여성이 스스로의 욕망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과 위치를 가졌으면 좋겠어.

무엇을 원하는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따위의 이야기를 애인에게 하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진정 상대방을 위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믿음이 허구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욕망을 가질 때 느꼈던 내 죄책감에 면죄부를 주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그 믿음을 이용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필자의 발견 또한 사실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욕망이라는 것을 한 개인이 느끼고 드러내는 과정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개입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애인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 욕자는 그러한 남성이 많이 없으리라 단언할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한국 사회에는 분명 성관계에 대한 보수적 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또한 필자가 남성의 위치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핑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분명히 보수적인 한국 사회, 여성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 등에 의해 죄책감을 가진다. 그리고 필자는 남성이라는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그 죄책감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망이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등, 특정 권력의 입맛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왔다. 난 '자유로운 욕망을 가진 여성'으로서 애인이 먼저 내게 다가와 나를 덜치길 원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욕망은 진열되어 있다. 어떠한 욕망은 가장 알자리에서 온갖 조명을 받지만, 어떤 욕망은 좁사 더러운 물건이 진열대에 올려 있는 것 마냥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를 받는다. 그렇기에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욕망을 주제로 한 필자의 경험을 한 번쯤 되짚어 따라가 보고 스스로의 욕망이 어떻게 진열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 담겨있는 것은 순전히 필자의 경험과 생각이니, 욕망을 자유롭게 스스로 구성해가든, 스스로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든, 남성적 권력에 기반을 둔 욕망을 소비하든 그것은 독자들의 자유이다. 단 욕망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인간은 타인과 욕망에 대한 담론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 하나만은 명백하다. 기준과 잣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을 함부로 단언하거나 확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폭력과 억압이 되는 잣대와 기준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악간의 불쾌감 혹은 기분 나쁨보다 옳지 않음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냥” 사랑, “진짜” 여자

영리 (fldud802@naver.com)

1) 사랑으로부터 여성
젠더 문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여성에 중심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 필자는
분명 '이성애'에서의
'이성애자' 여성을 선택해
다루고 있다.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성애로
치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본고의 '사랑'은
지배적으로 재현되는
신화이자 상품인
'사랑'이기에 '이성애'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누도 잇신의 2003년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하 <조제>]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당시 애인의 추천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다음에 전개될 나의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애인에게 말하자 그는 피로한 얼굴이 되었다. “그냥 사랑 얘기로 보면 안 돼?” 나의 슬픔, 분노, 그리고 역겨운 예민한 여자의 히스테리쯤으로 치부되었다. 남성 판타지의 재현물이 아닌 나 같은 여자도 남자 때문에 이런 고독한 순간을 겪곤 한다. 다만 나는 나의 고독을 아련한 사랑의 본질인 양 감상화(sentimentalization)할 생각이 없을 뿐이다.

대체 “그냥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조제>에는 세 ‘여자’가 등장한다. 남자 주인공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자(이케와키 치즈루 분)는 소녀 같고, 성 경험 없이 순결하고, 심지어 장애인이라 구원해주고 싶은 — 동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고할 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설정이다 — 그런 여자다. 영화의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떠나 다른 여자(우에노 주리 분)를 만나는데, 그녀는 조금 덜 드라마틱한 소위 ‘현실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물론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미래에 지장이 없지만, 그녀는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길거리 판촉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다. 마지막 여자는 남자 주인공과 섹스만 하는 여자다. 왜 등장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녀는, 셋 중 가장 말투도 거칠고, 머리도 짧고, 담배도 뽕뽕 피워댄다.

이런 명쾌한 구획이라니! 이런 구획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의 시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냥 사랑”은 가능해진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첫 섹스(물론 여자에게만 ‘첫 경험’이다.) 장면이 압권인데, 여자의 초라한 하얀 속옷과 덜 자란 듯한 ‘뽕뽕한’ 가슴은 그녀를 순수성의 표상으로 만든다. 이어서 감격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나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남자다운 로맨스 영화는 너무나 많다. 순수함이 퇴색되자 ‘뽕뽕’이 되는 폭력적 감수성을 김동률의 노래와 함께 아련한 추억으로 포장하는 <건축학개론>, 여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남성의 슬픈 깨달음을 위해 여성을 영원한 타자의 영역(아를테면 컴퓨터 운영체제)에 놓는 <그녀(Her)>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자 영화’가 “그냥 사랑” 영화처럼 취급된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대개 남성의 성장 서사에 여성을 밑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즉 여성들은 성적 대상으로 구획되고 소비되는 서사의 장치로 사용되는데, 남성의 구획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조 하에 있다.

위의 영화들의 예는 우리가 성(性)과는 구분해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랑’이 결코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로부터 간단히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바디우가 ‘사랑 예찬’에서 말하듯, “사랑이 차이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차이에서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탈각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을 감상화에 예쁜 장식품으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 예찬이란 제목은 사실, 지금 우리의 사랑을 예찬할 만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낭만적인 환상(이것이 보통 상품이 되지만)이나 상품을 예찬할 수는 없다.¹⁾

그렇다면 현재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겨지는 ‘권력의 성애화’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사랑이 가능할까? 문화산업에서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혹은 말했듯이 “대중 문화는 상품화되고 스테레오타입화하여,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우리의 경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 대중 문화는 엄청나게 신화적인 장이다. 이는 대중적 욕망의 무대이자, 대중적 판타지의 무대.”²⁾ 그러므로 <조제> 식의 여성 재현이 여성의 본질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혹은 바로 지적하듯,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 맨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곳도 바로 여기다.”³⁾

<조제>의 여성 재현이 가능하게 하는 신화에서 완벽히 자유로운 여성이 진정한 여성이라는 생각은 여성 주체를 본질화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자신을 재현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⁴⁾ 이는 그 외의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재현과 상상이 우리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리즈 위더스폰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똑똑하고 멋진 6명의 여배우가 명정한 역할 하나 두고 싸우는 것을 보고 직접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 <나를 찾아줘(Gone girl)>가 제작되었다. 분명 <나를 찾아줘>의 여성은 명정한 아메리칸 스윗하트는 아니지만, 여성성이 무기인 팜파탈의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은 변형일 뿐이다.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에서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경우도 그렇다. jtbc의 <마녀사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섹스 칼럼니스트 박정은은 못 여성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의 섹스와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공감을 샀지만, 동시에 “나는 예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단히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그녀가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산 이유도, 그녀가 ‘자기관리’ 하는 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사례는 여성이 자신을 성적 주체로 재현할 때의 두 모습을 잘 보여준다. “첫째,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지배적인 남성 주체와 동일시하여 여성의 욕망과 에로티시즘을 권력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중문화와 소비 사회가 제공하는 여성적 즐거움, 쾌락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⁵⁾ 이를테면 그녀의, “땀 흘리는 남자는 언제나 옳다. 그것이 잔디 위에서든 침대 위에서든.”이란 말이 일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상태를 성적 대상화하는 권력의 우위에 자신을 놓는 말이기도 하지만, ‘잔디’와 ‘침대’의 이미지를 결합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잔디로 표상되는 스포츠는 결국 젊고 매력적인 육체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경제력과 여유가 있는 남성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섹스 또한 그런 멋들어진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멋진 남성과 섹스하는 자신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

딜레마다. 성적 주체인 여성으로서 나는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나의 성적 욕망에 솔직하겠다고 입을 열면 성적 대상과 섹스를 소비하는 주체로 나 자신을 자리매김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혹은 ‘섹스에 대해 말하는 젊은 여자’로 신성한 요깃거리로 취급되기도 한다. (“말하지 마라. 상상된다.”고 내게 말한 남성도 있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면 “여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하는 여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 (심지어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 소리를 들었다.) 결국 재현의 맥락을 섬세히 살피고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수밖에 없다. 푸코는 ‘섹스’는 섹슈얼리티에 의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섹스’에 과도한 능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권력에 진정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섹슈얼리티의 전개에 대항해야 한다.⁶⁾ 이 글 또한 내가 나에게 대하여 재현하고, 나아가 대항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또 아주 재미있는 점은, 나는 다음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에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웃을 입을 거란 점이다. 이런 글을 쓰는 페미니스트가 심지어 못생기기까지 하면 너무나 쉽게 비하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주체를 가로지르는 젠더/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다단하다.

2) 스텔러트 윌, ‘육인 대중 문화에서 이 ‘육인’이란 무엇인가’, 567p

3) 윌, 위의 책, 567p

4) 윌, 위의 책, 564p

5)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년, 1999

6) 위의 책, 48-49p

배제에서 피어나는 입체성

이프 (ji0036@naver.com)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일본발 서브컬처 문화'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낯설지만은 않다. 필자인 나를 포함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소위 '오타쿠'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렇지 않은 소위 '머글', '일반인' 중에서도 sns를 통해서 한때 유행했던 '친격의 거인', 혹은 '니코니코니'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영화나 소설 등 다른 매체가 아닌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백합물'이라는 장르의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백합물'은 여성 캐릭터 간의 유대에 초점을 맞춘,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직/간접적으로 여성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장르를 말한다. 이러한 상당히 매니악하고 극한적인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장르에서 여성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신이 본 소년만화나 판타지 배틀 장르의 애니메이션 중 가장 스테레오타입적인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작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으면 3명, 많으면 10명까지 정도의 주인공의 동료 파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티 중, 여성 캐릭터의 수는 한두 명, 많아야 세 명이다. 또한, 이들 여성 캐릭터는 보통의 경우 소위 '힐러', '서포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성 캐릭터가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을 '여성의 완력이 평균적으로 남성의 완력보다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흔히 미형에 마른 몸매로 그려지는 남성 주인공이 훨씬 완력이 셀 것으로 추측되는 적을 이기는 '전사'인 것을 생각하였을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캐릭터성 묘사에서도 여성 캐릭터는 매우 의존적이며 감성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소위 말하는 '여성성'을 캐릭터에게 부여한다. 물론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소위 '여전사' 타입 캐릭터들도 소수나마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성을 박탈당하여 명예남성 취급을 받거나, 다른 남성 캐릭터와의 연애를 통해 다시 수동적 여성성을 부여받는다. 후자의 경우 독자들이 '너도 역시 한 명의 여자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이러한 부자연스럽고 평면적인 여성 묘사는 주체성과 적극성, 호전성 등의 특징이 모두 남성 캐릭터에게 부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남성 캐릭터가 배제된 '백합물'이라는 장르에서 여성 캐릭터가 어떻게 더 입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여후 문단부터는 각 작품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 자 님 이 되 고 싶 었 던 공 주 님 , 소 녀 혁 명 우 테 나

<소녀혁명 우테나>는 1997년 작 애니메이션으로, 고전적인 작화풍과 변신소녀물이라는 장르 아래에서 진보적 페미니즘을 설파하는 문제작이자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통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공주님을 구해주는 백마 탄 왕자님'이라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왕자님과 공주님을 모두 여성 캐릭터로 설정한 후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왕자님(이 되려고 하는 소녀) 역할인 주인공, 텐코 우테나는 어린 시절 양친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시절 왕자님과 만난 후, 그를 그리워하여 자신이 왕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소녀이다. 반면 공주님 역할인 또 다른 주인공, 히메미야 안시는 왕자님이 되려고 벌이는 전투의 전리품으로 취급되어 '장미의 신부'라고 불리는 존재이다. 그녀는 스스로도 이러한 '보상'의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지가 없는 듯한 매우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당연히도, 이러한 프레임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테나가 어린 시절 만났던 왕자님인 아키오는 한때 디오스라는 이름으로 '모두의 왕자님'이었으며, 그가 모두의 왕자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소녀는 '공주님'이었고, 모든 공주님은 디오스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의 여동생이었던 안시는 그가 무리하게 모든 소녀를 구원하려 싸우는 것을 막으려 그의 힘을 봉인한 후 모든 소녀의 원망을 받아 '마녀'가 되었고, '세상을 혁명하려 한 벌'로 백만 개의 검에 찔리며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 왕자의 힘을 잃은 디오스는 안시를 구원할 수 없었고, 세상을 떠돌며 다른 왕자님을 찾는다. 우테나는 디오스를 만나 고통받는 안시의 삶을 동정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하여 왕자님이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최후에 우테나는, 안시를 구원하기 일보 직전에 안시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거부당한다.

언뜻 이는 우테나의 실패로 보인다. 하지만 우테나가 안시의 구원에 실패함으로써 비로소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의식이 실현된다. 우테나는 안시를 구원하는 왕자님이 되는 데에 실패한다. 즉, 안시는 왕자님에 의하여 구원받는 공주님에서 벗어나는 데에 실패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구원에 실패한 우테나는 사라지고 타락한 디오스인 아키오는 그녀의 실패를 비롯하여, 안시는 그를 부정하며 우테나를 찾아 떠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난다. 우테나는 왕자님이 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소녀혁명'에는 성공했다. 제목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소녀혁명'은, '보호받는 공주님에서 능동적인 여성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소녀혁명은 안시가 디오스를 봉인하고 보호받는 공주님들을 강제로 없애버리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공주님'이 되어버린 안시를 우테나가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녀혁명 우테나(좌-우테나, 우-안시)

사 람 이 이 끌 어 낸 회 망 과 절 망 , 마 법 소 녀 마 도 카 ☆ 마 기 카

'마법소녀물'이라는 장르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당장 떠오르는 이름만 해도 '세일러 문', '고마마법사 레미', '웨딩 피치', '캐릭캐릭 체인지' 등 어린 소녀를 타겟층으로 한 이 장르는, 기본적으로 타겟층이 공감할 수 있는 소녀들이 마법을 사용해 변신하고 적과 싸우는 것을 주된 틀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장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타겟층인 소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남성 캐릭터와의 연애'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는 2011년 방영된 TV 애니메이션으로, 장르 자체는 마법소녀물에 속하나 여러 면에서 기존의 마법소녀물의 클리셰를 비틀고 전복한, 일종의 안티테제적 다크 판타지 작품이다. 2화까지는 일반적인 마법소녀물과 비슷하게 연출되어 있지만, 3화에서 메인 캐릭터가 적인 '마녀'에게 머리를 물어뜯겨 사망하는 묘사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의 분위기도 또한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된다. 마법소녀들은 모두 처음에 계약을 통해 자신을 마법소녀로 만든 '큐베'에게 속아 인간이라고조차 부를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으며, 싸워야 하는 적인 '마녀' 또한 마법소녀가 절망을 통해 다다르는 최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런 전개 하에서 메인 캐릭터인 소녀들에게 당연히 '연애'와 같은 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마법소녀의 희망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와 함께 그녀들은 마법소녀 외적인 남성 캐릭터와의 관계를 거의 배제당하며, 따라서 이 작품에는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단 한 명, 비중이 있으며 마법소녀와 연애 문제로 엮이는 남성 캐릭터가 있다.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이 캐릭터도 절대로 일반적인 마법소녀물의 남자 주인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만화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카나에 마도카'와 또 다른 주인공인 '아케미 호무라'는 남성 주인공이

배제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다. 호무라는 본디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활발한 성격의 마법소녀인 마도카에게 한 번 구원받고, 결국 마도카가 전투로 인해 사망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소원을 빌어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획득하고 마법소녀가 된다. 시간을 되돌아가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복된다. 아직 마법소녀가 되지 않은 내성적인 소녀인 마도카와 여러 번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구를 대로 구름' 감정에 무뎌진 마법소녀 호무라가 재회하며, 결말부에서도 마도카가 호무라(뿐만이 아닌 모든 마법소녀와 마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소원을 빌고 마법소녀가 되는 대칭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남성 캐릭터가 배제됨으로써 두 여성 캐릭터는 일방적으로 구원받는 평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각각 한 번씩 주체성을 획득하여 서로를 구원하고 성장하고 있다.

반면 마도카의 친구에 해당하는 '미키 사야카'는 다르다. 사야카가 마법소녀가 된 계기는 '좋아하는 남학생이 다시 바이올린을 켤 수 있도록 팔을 고쳐주기 위해서'이다. 기존 마법소녀물에서 볼 수 있었던, 연애 관계와 캐릭터성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캐릭터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예외적인 캐릭터이다. 하지만 마법소녀가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하여 팔을 고쳐준 사랑하는 남자는 자신의 친구인 다른 여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며, 사야카는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닌 몸이 되어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여 파멸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주체성은 타 캐릭터보다 훼손되고 수동적으로 묘사되며, 결국 그녀와 함께 희생하고 사라지며 그녀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해내는 것은, 또 다른 여성 캐릭터인 코코이다.

마도카의 호무라에 대한 구원과 코코의 사야카에 대한 구원은 자기희생적이며 '과도하게 성스럽게 묘사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이에 이것을 완전한 '여성의 주체성 획득'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작품 내에서 '남성 캐릭터와 이성애적 관계에 묶여 수동적으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와의 관계만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여성 캐릭터'가 공존하고 있는 이 작품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성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를 연애에 묶인 존재로 한정시켜서 그로 인하여 간접적인 억압을 해왔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결론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기존의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인 주인공의 연애 대상, 혹은 그를 지원하는 역할로만 등장하고 소비되었고, 여성 캐릭터 그 자체가 아닌 남성 캐릭터와의 관계성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캐릭터가 배제된 환경인 '백합물'의 세계관 안에서 여성 캐릭터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계몽하여 훨씬 입체적이고 주체적으로 묘사되며, 사랑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이성애 커플의 묘사처럼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연애만에 묶여있지 않은 여성으로 거듭나며, 소비 대상인 '여캐'가 아닌 현실의 여성,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미키 사야카의 예시를 들었듯, 이는 남성 캐릭터를 여성에게서 완전히 배제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그치고 있다. 여성이 주체적이 된 세계관 안에서도 남성과 이성애적 관계로 엮이는 순간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은 다시 기존의 틀 안으로 끌려들어간다. 기존 세계관 내에서 남성 캐릭터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과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인 여성 묘사를 탐색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솔직히, 정형화되고 평면적인 '여캐 묘사'에 우리 모두 지쳐 있던 참이 아니던가.

이뤄지지 않는 동성애는 이제 그만

서동민 (twin09041@naver.com)

문과대 연극동아리에서 배우를 한 적이 있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작품 <우리들의 나쁜 자식> 속 고든이라는 소년이었다. 고든은 원작에서보다 한국의 기획사가 각색한 대본 속에서 더 명확하게 동성애자로 설정되어 있었다. 우리 팀은 기본적으로 원작을 따르기 위해 한국판에서 추가된 고든과 다른 남성 간의 키스신 등을 빼고 공연하기로 했다. 문제는 첫 공연 날 발생했다. 한국의 각색 버전을 좋아하는 모 사이트의 동호회 회원들이 고든 연극을 관람하러 온 것이다.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그들의 후기에는 주로 프로 팀에 비해 부족하다는 식의 비난이 담겨있었다. 그중에는 '고든 키스신은 왜 뺐 거야? 하긴 그걸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었겠지.'라는 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대에서 남성 간의 동성애가 (오직 남성 간의 동성애만) 재현되는 것은 이미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흔한 풍경이 되었다. <헤드윅>, <헨트>, <나쁜 자식>, <라카지>, <킹키부츠>, <쓰릴미> 등 이러한 예는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뮤지컬을 포함한 문화 상품 속의 동성애에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을까. 왜 무대 밖의 동성애자가 교편을 잡는 일은 여전히 '불건전'하게 여겨지는 사회이지만, 무대 속의 동성애자가 키스를 하는 일은 아름답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앞서 언급한 동호회 회원의 경우처럼 뮤지컬의 경우에도 일정한 편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용적인 수용 태도의 원인을 그들의 취향에게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 외의 관객들에게도 이러한 뮤지컬은 여전히 보고 싶은, 꽤 고급의 문화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대 안의 연기가 어디까지나 '가짜'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은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이성애자가 연기하는 동성애'라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천명될 때, 그들의 연기는 쉽게 '가짜'로 치부된다. 이러한 소비 양상은 동성애자를 연기한 배우들의 인터뷰 속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엔 동성애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성의 얼굴을 떠올리며 연기에 임했다.", "술 한 잔 씹을 마시고 촬영에 들어갔다." 배우들은 이러한 말들을 통해 한편으로는 그들이 프로정신이 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동성애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들과 짝을 이루어 '이성애자가 연기하는(연기해야만) 하는' 동성애'는 소비된다. 동성애자 배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성애자 배역은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플롯 상의 이유이다. 예시로 들었던 공연들 속에서 대부분의 동성애적 감정은 실패하거나 자기파멸의 결말을 맞는다. 여장남자 연정은 에이즈로 죽고(<헨트>), 동성애자 고든은 결국 짝사랑하는 감정에 못 이겨 자살한다(한국판 <나쁜 자식>). 아도르노는 "영화에서는 미래에 백만장자의 사위가 될 사람이 노동 운동을 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불륜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엄격히 터부시된다."(<계몽의 변증법> 214쪽)고 말한다. 노동운동처럼 급진적인 전력이 있어도 결말(결혼)이 그 위험성을 무력하게 바꾼다면 보수적인 영화조차 이를 안전한 소재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다룬 플롯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결말이다. 이런 결말들은 동성애자라는 존재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보다 수용되기 쉽다.

물론 모든 작품 속의 동성애자들이 죽는다는 결론은 지나친 일반화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작품들에서 동성애는 흥미를 끄는 소재로 등장하지만 결국 대부분 실패한다. 스크린이나 TV의 경우는 조금 더 폐쇄적이다. <시크릿 가든> 속의 썬(이종석)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왕의 남자> 속 공길(이준기)은 죽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응답하라 1994> 속의 빙그레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에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는다. (아마 빙그레의 경우는 '비극성의 해소는 개인의 몰락을 재확인시켜준다.'라는 아도르노의 말에 부합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경우 동성애는 결국 실패하기에 안전하게 소비된다. 반대로 동성애자가 사라지지 않고 가정을 이루었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드라마 보고

게이가 된 우리 아들 에이즈 걸리면 책임져라.”라는 식의 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단순한 수용을 넘어서서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을 마치 작품의 정수처럼 여기는 위의 동호회 회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은 나쁜 자석 속에 삽입된 고든의 독백이다. “그래, 나는 나쁜 자석(외톨이, 혹은 게이)이야. 이제 너에게 다가갈 수 있어.”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고든은 철벽에서 투신한다. 이상의 장면은 사회적 금기와 그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마치 의지적 노력과 그 성취의 문제인 것처럼 변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든은 죽지만 그 죽음은 곧 사랑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식의 논리인 것이다. (이때, 그의 대사는 그 모순을 비가시화하는 일종의 알리바이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관객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모순된 논리는 그의 사랑에 비장미를 배가시킨다. 자살에 앞선 첫 만남, 키스신 등의 장면이 덩달아 ‘작품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고든의 사랑은 죽음을 초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선택’의 문제 때문이었다. 나에게 든 의문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소위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발맞춰 성 소수자를 다룬 문화상품마저 생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성 소수자 배우들은 등장할 수 없는 것일까. 다양한 ‘선택’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왜 집중팔구 문화상품 속의 동성애적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런 동성애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실패를 칭찬하게 되는 것일까. 왜 고든은 가졌 한다는 ‘선택’이 투신자살인 것일까. 그것은 과연 고든의 ‘선택’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일까. 어쩌면 이런 점들을 의문시하는 나는 지나친 피해 의식이 있거나 ‘진지충’인 사람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설마 <나쁜 자석>을 다큐멘터리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 나는 작품 속 ‘고든’의 행동이 현실과 관계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라는 가치와 위배되도록 창작자에게 해피엔딩을 강요하는 것인가?”

물론, 현존하는 모든 문화상품들이 실패하는 동성애를 다룬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 문화상품 속의 동성애가 거의 매번 실패하는 일종의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나는 이 글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 동성애는 이제 그만 다뤄지기를 주장한다. ‘동성애=실패=송고’의 동식은 이제 문화상품의 향유자들과 창작자에게 일종의 장르 문법(?)이 된 것 같다.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일단 벗어난 작품들은 쉽게 비난받거나 외면받는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더 큰 실패는 바로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매우 저조했다는 사실이다.) 문화상품이 되도록 그 안의 동성애가 이뤄지도록 신경을 쓰는 일은 분명 어려운 작업일 듯하다. 그 바깥의 성 소수자들도 좋은 이웃으로, 부모로,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그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나은 문화상품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영화를 통해 다시 보는 페미니즘

✉ syl9425@naver.com

0.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친구도 만들고 싶고 잡지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 보기에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이하 세다페)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페미니즘의 여러 면들에 대한 논의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세다페의 세미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3주차 - ‘영화로 보는 여성의 성역할과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기도 했고, 페미니즘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매체에서 페미니즘 영화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좋아합니다. 현실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지점들을 글보다 더 생생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매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향간에 강한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영화라는 대중적인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표현된 페미니즘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페미니즘적인 사고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페미니즘 영화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남긴 페미니즘적인 관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드맥스 영화 포스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중의 하나인 제 3주차 세미나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논의는 최근에 개봉했던 로드무비인 매드맥스가 페미니즘 영화인지에 대한 논의와 ‘시선의 대상’으로서 여겨지는 영화계 안팎의 여성의 모습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매드맥스가 페미니즘 영화인지에 대한 논의는 영화 개봉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드맥스의 논쟁에 대해 발제의 읽을거리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남성 권리 활동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론 글레리라는 사람은 매드맥스가 남자들을 위한 액션 영화로 포장된 ‘페미니스트 프로파간다’이므로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중략…….) 나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페미니즘 영화라고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영화에는 자율 수 없는 페미니즘 메시지가 있다.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를 피하는 게 가능한 할까? 프로파간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가 프로파간다가 아니면 뭐가 프로파간다인가.”

단지 "액션 영화인가, 페미니즘 영화인가"의 이분법은 많이 이상하다. 페미니즘 프로파간다가 되면 <매드맥스>의 끝내주는 액션이 모두 사라져버리는가? 수많은 훌륭한 프로파간다 영화는 늘 다른 무엇이기도 했다. (.....중략.....)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장르적 매력을 버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위대한 영화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듀나) * (3회차 세미나 발제문 인용)

앞으로 페미니즘 영화라고 소개할 영화들이 페미니즘 영화라고 해서 그 영화의 장르적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페미니즘 영화라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이나 편견의 틀에 사로잡혀서 페미니스트 프로파간다이므로 보아뱀하자는 주장을 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페미니즘 영화에 대한 지나치게 유아적인 반응입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기억하는 그 영화의 매력은 다를 것입니다. 그 영화가 가진 매력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요. 한 작품의 영화가 장르, 스타일, 감독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에 속할 수 있듯이, 페미니즘 영화도 그 카테고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적 영화 연구와 제작은 1970년대 초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특히 할리우드 상업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여성에 비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페미니즘영화는 여성의 주체적 자아를 강조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피해를 고발하는 영화로, 성폭력의 묘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인간성이 왜곡되는 풍조와 사회통념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이 전사로 등장하여 여성상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쥬라기 월드 포스터



▲쥬라기 월드 하이힐 풍자



▲여자주인공 풍자

제 3주차 세다페 세미나에서 인상 깊었던 또 다른 논의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계 안팎에서 '시선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여성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쥬라기 공원'이 개봉 13일 만에 전 세계 수익 10억달러(약 1조 1083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곧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쥬라기 월드'의 여주인공인 쥬라기 월드의 임원 클레어는 영화 속에서 내내 하이힐을 신고 오피스 룩으로 쥬라기 월드를 우스꽝스럽게 뛰어다니고 그녀는 영화 속에서 끝없이 주변 인물들로부터 과소평가를 받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묘사됩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클레어는 그녀의 하이힐과 오피스 룩 등을 통해 그녀의 여성성만을 부각시키려고 한 점과 영화 속 남자 인물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자라서' 무시하는 성차별적인 모습들이 영화를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기에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쥬라기 월드가 여자를 그저 시선의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최근 개봉작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한 장면

세미나 당시, 쥬라기 월드의 성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던 중, 영화를 보다가 성차별적인 시선에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히어로 물에서 어렸을 때부터 여성을 시선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느끼고 크면서 히어로 물을 돈을 주고 영화관에 가서 보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배트맨이나 스파이더 맨을 보면 (히어로물의 장르적 특성일수도 있겠지만) 영웅의 애인은 거의 비중이 없이 영웅이 구해주면 '고마워요!! 사랑해요!! (쪽)'의 리액션만 보이는 지나치게 서브역할인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히어로물이라는 장르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남자 캐릭터들이라는 점이, 그리고 여자 히어로의 경우에는 여자 히어로가 애인을 위기상황으로부터 구해줬을 때, 애인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쪽)' 같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히어로 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단순히 장르적 특성이라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1. 페미니즘 영화의 고전, 델마와 루이스



▲델마와 루이스 포스터



▲델마와 루이스의 한 장면



▲극본가 칼리 코우리



▲리들리 스콧 감독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첫 번째 페미니즘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델마와 루이스>(Thelma & Louise)입니다. 《델마와 루이스》(Thelma & Louise)는 칼리 코우리(Callie Khouri)의 극본을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이 제작하고 수전 서랜던(Susan Sarandon)과 지나 데이비스(Geena Davis)가 주연한 1991년 작 미국 영화입니다. 로드 무비의 전형으로 평범한 두 여성이 겪는 사건들을 통하여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표현하여 이후 'Thelma & Louise': The Last Great Film About Women' 라는 평가를 받는 페미니즘 영화의 고전으로 여겨집니다. 이 영화는 여성 친구들의 가벼운 모습을 담은 버디 영화 이면서 전형적인 로드 무비로 볼 수 있 수 있습니다.



▲델마



▲루이스

<델마와 루이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정주부인 델마(Thelma Dickinson: 지나 데이비스)는 덜렁대기도 하지만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외출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순응하며 살아간다. 루이스(Louise Sawyer: 수잔 서랜든)는 웨이트레스로 품종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지만, 웨이트레스라는 직업 특성상 식당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기만 하다. 친구인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주말에 별장을 빌려 함께 여행을 가서 휴가를 보내기로 계획한다. 그리고 각자 남편과 애인에게 간단한 메모만을 남긴 채 신나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성적인 모욕을 한 퍼케트에게 권총을 겨누는 루이스



▲방아쇠를 당겨버린 루이스

그러나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차를 세웠을 때부터 평범한 두 여인들의 여행길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의 긴 여로에 오른다. 가부장적인 남편으로부터의 해방감에 들뜬 델마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술을 마시고 휴게소에서 만난 할란 퍼케트(Harlan Puckett: 티모시 카하트)와 춤을 추며 좋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 모습을 본 친구 루이스는 퍼케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델마에게 주의를 주지만 신난 델마는 주의를 무시한 채 퍼케트와 춤을 추다 퍼케트를 따라 휴게소 밖 주차장으로 나간다. 퍼케트는 델마를 주차장으로 이끌어내서 휴게소 안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델마를 강간하려한다.

다행히 델마를 찾아 헤매던 루이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델마가 집을 나설 때 췌킨 권총을 가져와 그를 제지하고 델마를 구해준다. 원래는 퍼케트를 위협만 하고 델마를 구할 생각이었지만, 델마를 구해내고 퍼케트에게 루이스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퍼케트가 성적인 모욕을 가하자 루이스는 싸 그를 살해한다. 그 이후로 즐거움으로 가득 찼었던 여행길은 공포의 도주로 바뀌고 델마와 루이스는 극한 상황에 빠져든다.

델마와 루이스는 연세대학교 골 고양이로 유명한 영화의 이해 수강자라면 과제로 봤을법한 대작인 블레이크 러너, 에일리언, 그리고 글라디에이터 등 여러 히트 영화를 제작한 영국 출신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디렉팅을 했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성의 정서는 감독은 남성이지만 아마도 현재까지도 여성주인공을 내세운 여러 영화나 티비시리즈의 각본을 쓰고 있는 여성각본가 칼리 코우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칼리 코우리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자면, 칼리 코우리는 미국 출신의 영화, 티비시리즈 각본가이자 프로듀서이자 감독이자 페미니스트입니다. 1992년도에 델마와 루이스 작품으로 각본 관련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델마와 루이스를 쓰기 이전에는 각본을 써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가 그녀의 첫 작품입니다. 그녀가 델마와 루이스를 집필하고 나서 직접 디렉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덜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당시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녀의 각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데이비스와 사라돈이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코우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칼리 코우리가 한 언론에서 이야기하길, 그녀가 처음에 델마와 루이스 각본을 영화화하기 위해 할리우드 이곳 저곳을 알아보다 다닐 당시 여러 사람들이 델마와 루이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각본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녀가 그들의 메모를 보았을 때, 그녀의 의도와 180도 다르게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그녀의 각본을 그녀의 의도대로 이해하기에는 여자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시대였기 때문이어서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델마와 루이스 개봉 당시 미국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rape culture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 정리된 당시 미국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영화의 주인공 델마와 그녀의 남편인 데럴을 통해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전문직과 고위직에 여성의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의 95%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었다. 남성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취업을 하기 보다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기를 원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전통적 가치가 중요시되었으며,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보수주의가 성행하였다.

문화적 배경 : 'rape culture'

Rape culture에는 성폭력을 평범한 삶의 일부로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는 남성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부추기고 여성에게 성적 행동에 관한 사전 정의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메시지인 강간통념(rape myth)들을 영속시키기도 한다. 강간통념의 종류에는 성폭력을 그저 거친 섹스 정도로 취급한다든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불러들인 책임을 지운다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강간통념들에서 왜 델마와 루이스가 합법적으로 할란 퍼케트를 처벌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증거라곤 델마 얼굴의 피와 친구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다 해도 경찰서와 재판소에서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에 희생되었을 게 뻔한 것이다. 비록 델마가 폭행을 당했지만 퍼케트와 춤을 추었고, 주차장으로 같이 나갔다는 사실이 델마를 궁지에 빠뜨릴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먼저 고리를 찼다,' '성관계를 바라던게 아니었다면 왜 모르는 남자와 춤을춰서 흥분시켰나,' '주차장까지 따라갔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았나' 등의 비난만 쏟아졌을 거란 뜻이다. 외법 처단은 물론, 재판소까지 가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델마와 루이스에게 퍼케트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직접적인 자경주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퍼케트의 죽음을 '살인'보다는 '처형'이라 해석하게 되고, 델마와 루이스의 도주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가부장적이고 rape culture라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개봉한 영화 <델마와 루이스>는 이전까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드무비 장르를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반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영화입니다. 또한 영화를 본 수많은 관객들이 델마와 루이스에 감정이입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묘사한 명작입니다. 두 주인공 델마와 루이스는 당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수한 장애물을 부딪치는 평범한 미국여성들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캐릭터들입니다.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과 관련해서 델마와 루이스의 극본을 쓴 칼리 코우리는 언론사 SYD field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델마와 루이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I wanted to write about two normal women. The definition of women as presented in films and plays is so narrow, so limiting. I noticed that when I was acting: How many times did I play a prostitute? Dramatically, it seems one out of every four women is a

prostitute. Where are the real people? Where are people that aren't prostitutes, who aren't selling themselves for sex? I wanted to write something with strong women in it. I wanted to write something that, had I been an actress and read the script, I would have thought, I've gotta do this role or I'm gonna kill myself.

저는 평범한 두 여자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묘사되는 여자의 모습은 너무 편협하고 그 범위가 좁습니다. 저는 제가 연기를 할 때, 깨달았습니다(칼리 코우리는 연기 경력도 있습니다). 내가 매춘부연기를 몇 번이나 했던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여자의 1/4이 매춘부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신의 성을 팔지 않는, 매춘부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여자의 강함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매춘부로서 대본을 읽었을 때, 이 역할은 꼭 해야겠다 못하면 자살할 생각까지 할 정도의 캐릭터를 쓰고 싶었습니다.

각본가 칼리 코우리가 의도한대로 델마와 루이스라는 두 캐릭터는 현실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고 영화에서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델마와 루이스는 상황에 따라 점점 변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남편의 말이라면 전혀 저항하지 못했던 델마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줄 알게 되고, 의상도 그녀의 심리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델마가 입고 있는 의상의 변화를 보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고 입은 여성스러운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옷은 캐주얼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매우 심플한 청바지에 검정 민소매입니다.



▲영화 초반 델마의 여성스러운 패션



▲영화 후반 델마의 중성적인 패션

델마와 루이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복수라는 즐거리로 인해 주로 여성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인기를 얻는 것에 반발하는 남성 관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년도인 1991년에는 영화 속 여성들이 너무 폭력적이며,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개봉 당시 특히 문제시 되었던 여성들의 폭력성의 포인트가 여자가 남자를 총살한다는 점이었던 것입니다. 살인에 있어서 영화에서 묘사되는 남자의 살인에는 반감이 없으면서 영화에서 여자가 살인의 주체가 되는 그 반대는 인용되지 않는 시선이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더불어,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히 여성 관객들의 만족과 선호에서 나아가 페미니즘적 가치에 관련하여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평론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영화에 대한 과거의 안 좋은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델마와 루이스가 여러 칼럼이나 페미니즘 관련 글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을 보면, 델마와 루이스라는 페미니즘 영화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이 경향신문 칼럼에서 델마와 루이스와 관련한 글을 쓰신 바 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는, 비록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¹⁾

이 영화가 성평등적 관점에서 가진 의의를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합니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 문제의 또 다른 그늘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대다수 사회조직과 문화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다. 사회생활과 일상은 물론 각종 문화매체에서도 여성은 '볼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 '보이는 존재'다. 강의실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을 배우고 공감하지만 취업 면접을 위해 남몰래 성형외과를 찾는 여학생들을 보면 삶의 아이러니에 앞서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대학에서는 페미니즘, 양성평등 등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취업을 생각하게 되면 사회적인 시선을 따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년 전 영화인 델마와 루이스가 시사한 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에 의해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여성의 모습을 지향하는 점 말이지요.



▲델마 삼봉이발소 중



▲취업에서의 '보이는 존재'

델마와 루이스는 칸 영화제에서 상영 되었는데, 이 영화의 대표적인 사회적 파급력으로는 상영 이후 영화 델마와 루이스 관련 음악이 작곡되었다는 점입니다. 델마와 루이스 개봉 이후, 싱어송라이터 토리 에이모스는 6년 전 자신이 강간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Me and a Gun이라는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먹먹한 느낌이 드는 가사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토리 에이모스

Me And A Gun

Sam
Friday morning
Thursday night
Far from sleep
I'm still up and driving
Can't go home
obviously
So I'll just change direction
Cause they'll soon know where I live

And I wanna live

Got a full tank and some chips

It was me and a gun

And a man on my back

And I sang "holy holy" as he buttoned down his pants

You can laugh

It's kind of funny things you think

at times like these

Like I haven't seen Barbados

So I must get out of this

Yes I wore a slinky red thing

Does that mean I should spread

For you, your friends your father, Mr. Ed

Me and a gun

and a man

On my back

But I haven't seen Barbados

So I must get out of this

Yes I wore a slinky red thing

Does that mean I should spread

For you, your friends your father, Mr. Ed

And I know what this means

Me and Jesus a few years back

Used to hang and he said

"It's your choice babe just remember

I don't think you'll be back in 3 days time

So you choose well"

Tell me what's right

Is it my right to be on my stomach

of Fred's Seville

Me and a gun

and a man

On my back

But I haven't seen Barbados

So I must get out of this

And do you know Carolina

Where the biscuits are soft and sweet

These things go through you head

When there's a man on your back

And you're pushed flat on your stomach

It's not a classic cadillac

Me and a gun

and a man

On my back

But I haven't seen Barbados

So I must get out of this

youtube에서 찾아보시면 토리 에이모스가 이 노래를 담담하게 부르는 영상들이 있으니 노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글은 포브스에 실린 각본가 칼리 코우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려 합니다. 델마와 루이스 20년이 지난 최근에 그녀는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브스 인터뷰어와 칼리 코우리는 다음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Forbes : With that in mind, how have conditions changed in Hollywood for women? In general and for women who write feminist content? How has it changed in 20 years since you won your Oscar?

포브스 : 그 점을 염두하고, 할리우드에서는 여자를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나요? 보통의 경우와 페미니스트 내용을 집필하는 여자의 경우에 말이죠. 당신이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해왔나요?

Callie Khouri : Well, I certainly don't think the numbers are proportional in the amount of work that does get done. If you look at the Writers Guild numbers, Directors Guild numbers, you'll see that it's not remarkably different, which is really a sad state of affairs if your female. Clearly there's much more awareness about it, (.....) It's really beginning to be the world's most boring conversation, you know? I think everybody's sick of talking about it, I just wish it would change.

칼리 코우리 : 글썽요, 저는 꽤 많은 업무에서 남녀 비율이 여전히 차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작가협회나 감독협회를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아실거예요. 당신이 여자라면 이런 현실이 슬플만하죠.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 (중략) ... 당신이 알지 모르겠지만, 직무에서의 남녀성비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꽤나 재미없는 대화의 시작으로 여겨져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가 남녀성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꽤나 귀찮아해요. 싫어하기도 하구요. 저는 그저 이런 현실이 바뀌기를 바랄 뿐이에요.

필자도 칼리 코우리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남녀 혹은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재미없다는 식의 자세, 극단적으로 상호 혐오적인 태도 등의 현재의 문제들을 외면한 채 서로를 비방만 하려는 모습이 점차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소양인 서로의 입장을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2. 바그다드 카페 (Out of Rosenheim, Bagdad Cafe)



◀영화 바그다드 카페 포스터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페미니즘 영화는 바그다드 카페(Out of Rosenheim, Bagdad Cafe)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 뮌헨 출신의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퍼시 애들론(Percy Adlon) 감독의 작품으로 1987년 개봉된 영화입니다. 퍼시 애들론 감독은 뮌헨의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독일문학과 희곡역사, 예술 등을 공부하였고 졸업한 뒤 연극무대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배우와 내레이터 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7년 발표한 <바그다드 카페>로 88년 제 14회 시애틀국제영화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을 수상한 <바그다드 카페>는 사실 개봉 당시에는 그리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출연한 영화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비디오로 출시된 이후에는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있는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이 있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명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야스민과 브렌다의 첫 만남(좌-야스민, 우-브렌다)

<바그다드 카페>는 흑인과 백인으로 외모와 국적부터 서로 다른 두 여자(브렌다와 야스민)가 우연히 만나 진정한 자매애(sisterhood)를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 페미니즘 영화로 두 여배우의 명연기와 애잔한 여운이 남는 주제가 <Calling You>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주제가 <Calling You>는 무명 키보드 연주자였던 밥 텔슨(Bob Telson)이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아련한 느낌의 곡으로 자신의 부름에 답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사가 짧고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멜로디의 아련함과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의 영화 장면과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I am calling you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Can't you hear me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I am calling you
당신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I know you hear me
어디선가 제 목소릴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영화 제목과 달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와는 관련이 없고 미국 네바다 주 한 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의 '카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바다 사막을 여행하던 독일 출신의 중년 남녀가 차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여자를 사막 한 가운데 노란 커피메이커와 덩그러니 남겨둔 채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점점 캐리어와 노란 커피메이커와 함께 남겨진 독일 여자 야스민이 주변에 있던 바그다드 카페에 머물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인 흑인여성 브렌다는 평소에 생활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짜증이 일상입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브렌다는 남편과 싸우고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바로 그날 야스민이 바그다드 카페에 찾아와 숙박을 원했고 브렌다는 손님이 달갑지 않습니다. 야스민은 브렌다가 잠시 외출한 사이 카페와 사무실과 지붕과 물탱크까지 말끔히 청소합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카페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브렌다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돌아온 브렌다는 야스민의 예상과 달리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야스민이 브렌다의 아이들(아들과 딸)과 친해지자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 자식에게나 신경 쓰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에 슬프게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야스민에게 브렌다는 사과를 합니다. 그 이후 브렌다와 마음을 터놓은 야스민은 바그다드 카페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바그다드 카페>의 두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민 : 마리안네 제게브레히트(Marianne Sagebrecht) =동동한 백인여성

야스민은 사막여행을 하다가 남편과의 다툼으로 사막 한복판에 버려지는 독일인 백인 여성입니다. 남편의 변덕과 성화에도 언제나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사막 한복판에 버려집니다. 야스민은 카페의 주인 브렌다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과묵하며 조용하지만 가끔씩 말보다는 과감한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해 줍니다. 영화 초반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그다드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화가 볼테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포용력과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그다드 카페의 식탁하고 메마른 사람들을 그녀 특유의 포용력으로 신경질적이었던 인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 정장차림의 야스민



▲영화 후반의 야스민

정장차림에서 오른쪽 젖가슴을 노출하게 되는 야스민의 복장은 바그다드 카페의 사람들에게 대한 차츰 경계를 풀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브렌다 : CCH 파운더(CCH Pounder) = 날씬한 흑인여성

브렌다는 바그다드 카페를 운영하는 브렌다는 걸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인물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느끼는대로 다 말하는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무능한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생하는 신세한탄을 하고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결국엔 남편의 무능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여자입니다. 야스민의 청장 스타일의 클래식한 평소 의상과 비교했을 때, 브렌다의 의상은 보헤미안스럽습니다. 양말도 빨간색으로 신고 머리는 이리 저리 삐쭉뻐죽 하며 화장은 전혀 하지 않은 모습으로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엔 쉽게 화를 내긴 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야스민을 탐탁지 않아 하지만, 곧 자신을 도와주려는 야스민을 받아들이고 우정을 쌓아갑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무언가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설득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온건하고 잔잔한 표현방식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가치를 보는 이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 합니다.

주인공 야스민은 현대의 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운 여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외적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통통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다 볼 무렵에는 그녀가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녀는 바그다드 카페에서 머물면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순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곧 자신의 힘으로 바그다드 카페에서의 삶을 꾸려나가고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 깊이 소통할 줄 아는 여성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그녀의 포용력은 삭막했던 바그다드 카페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S라인 몸매, 각선미 등의 여성이 가진 외적인 아름다움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요되는 여성미는 반쪽짜리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야스민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녀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화의 카메라는 관객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카메라는 미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했던 1980년대의 영화임에도 여성을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선, 주인공 자체가 흑인여성과 독일여성으로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특히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인 흑인여성 브렌다의 아이들을 보면 브렌다의 아들은 미혼부이고 딸은 맨날 기회만 생기면 여러 남자들과 노는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기존의 영화에서 묘사되는 남녀의 설정과 상반된 설정입니다. 기존에는 미혼모 캐릭터가 다수였지만, 이 영화에서는 여자에 의해 버려진 자기 아들의 부양을 책임지는 미혼부 캐릭터가 미혼모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사회적인 행동의 제약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기질을 가진 딸의 경우에도 바람둥이 남자 캐릭터가 다수이던 기존 영화들에서는 볼 수 없던 캐릭터입니다. 기존 영화들은 바람둥이 남자는 그럴만하다는 식으로 묘사하면서 여자가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바그다드 카페의 감독은 바람둥이 기질을 가진 딸을 귀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기질을 가진 여성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당시 기존 가부장적 사회가 바라보는 여성과 다른 여성 캐릭터들을 그려낸 페미니즘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페미니즘과 함께 이해와 사랑을 통한 상호 간의 단절감 극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포용하고 소통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야스민이 바그다드 카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연결고리는 바로 '마술'입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 있던 마술키트로 마술을 연습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곧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마술은 카페 사람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고립되어 파리로 날리던 바그다드 카페를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줍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로 여기는 장소가 되게 합니다. 마술이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한 매개어기는 하지만 그녀의 마술의 기본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포용하는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카페> 영화 관련 여담으로 감독 자신도 뭘엔 <바그다드 카페>를 여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바그다드 카페>를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실제 촬영 장소인 캘리포니아 뉴베리 스프링스의 'The Sidewinder Cafe'는 영화 편의 순례 장소가 되었고, 카페 실제 주인은 덕분에 새 집을 지을 여유가 생겼지만, 영화 장면 그대로 'Bagdad Cafe' 간판을 단 저렴한 채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한 장면 - 마술을 하는 야스민과 브렌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이번 학기 공강 시간에 신중도 멀티미디어실에서 영화 매드맥스, 델마와 루이즈 그리고 바그다드 카페를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델마와 루이즈와 바그다드 카페같은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같이 남을 명작이기도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자되는 작품성 있는 페미니즘 영화들입니다. 매드맥스의 경우에는 올해 개봉된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매드맥스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 영화들을 통해 기존의 맹목적인 비난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페미니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등 페미니즘에 대해 한 번 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그다드 카페의 한 장면 - 재회하는 야스민과 브렌다

참고 자료

세다페 3주차 발제문 - 영화로 보는 여성의 성역할과 여성의 주체성

https://ko.wikipedia.org/wiki/%EB%8D%B8%EB%A7%88%EC%99%80_%EB%A3%A8%EC%9D%B4%EC%8A%A4

(델마와 루이스 영화 정보 - 위키 백과)

<http://www.npr.org/2011/05/20/136462014/looking-back-on-thelma-louise-20-years-later>

(델마와 루이스 기획의도)

<http://www.forbes.com/sites/lizadonnely/2014/02/26/pop-culture-and-feminism-an-interview-with-hollywoods-callie-khoury/>

(델마와 루이스 스크립터 칼리 코우리 인터뷰 포브스지)

http://www.lostland.kr/shop/bbs/board.php?bo_table=talk&wr_id=112816&sfl=&stx=&sst=wr_hit&so_d=desc&sop=and&page=3479

(델마와 루이스에서 페미니즘적 요소들)

<http://sydfield.com/interviews/callie-khoury-on-creating-character-thelma-louise/>

(칼리 코우리 인터뷰 2 SYDfield)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12171552551&code=115>

[김호기의 예술과 사회] 양성평등 중요성 일깨운 <델마와 루이스>

<http://m.blog.naver.com/yogin10/100189836480>

(바그다드 카페 줄거리, 인물)

<http://sinsiya.tistory.com/m/post/68>

(바그다드 카페 페미니즘적 요소들)

<http://iscu.tistory.com/493>

(바그다드 카페 영화 이미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972

(바그다드 카페 평론)

음란물과 페미니즘이라는 호명

우산

1. '혐오주의'는 '경제' 탓?

5월 18일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의제는 "혐오주의를 혐오하는 나, 비정상인가요?"였다. '-주의ism'라는 접미사는 이 단어에 모종의 철학이 들어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여기서 철학은 마치 '테러리즘'이란 단어에서도 그렇듯이 폭력의 구실이 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렇기에 '혐오'라고 하면 될 것에 '-주의'를 굳이 붙여, 약자에 대한 혐오마저 윤리적 판단으로부터 탈각시키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거리로 만드는, 소위 '중립'을 표방한 물타기의 혐의를 지울 수 없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중 하나는 여성 혐오 발언으로 화제가 된 "용달샘" 멤버 유세윤이다. 역시나 방송 시간 내내 여성 혐오에 대한 발언은 그 누구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마치 여성에 대한 혐오는 의제가 될 만큼 중한 사안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혐오주의로 인한 불매운동은 정당한가?"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은 나의 혐의를 확신으로 만들었다.

게스트는 진중권이었다. 그는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대해서 그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말하기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위에, 권력층에 요구해야 하는데 두려워 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력의 방향이 옆을 향한다. 즉 수평 폭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에 벨기에 대표 줄리안은 "독일도 나치 집권 직전에 경제 위기를 겪었다. 히틀러가 혐오의 대상 만든 것"이라며 동조했다. 진중권은 "원인이 아니라 범인을 찾는 것"이라며 정리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책임이 "경제"인가? <비정상회담>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경제 문제가 모든 원흉인 듯하다. 게다가 여기서 문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나쁜' 자본주의다. 양극화, 경제 위기는 나쁘지만 자본주의는 나쁘지 않다. 이때 자본주의는 문제제할 수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여와 아가 끝도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추구창창 떠돌아다니는(문재인은 유승민의 원내 연설 다음날 그의 <문재인의 새경제>라는 연설에서 "경제"를 100회나 말했다. '복지'는 8회였다.) 이 사회에 맞춘 결론 아닌가?

<시사IN> 제392호의 커버스토리 '여성' 혐오하는 젊은 그대는?에서는 먼저 여성 혐오의 주체를 '청년 남성'으로 설정한다. 양성평등연대(성재기가 설립한 남성연대의 후신)와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작해 여성 혐오를 "루저" 청년 남성들의 분노의 화살이 여성에게 향한 것이라 파악한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성재기 키즈'의 동창은 몇몇 젊고 모험주의적인 남성의 돌출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돌출 행동을 생산해내는 바탕 정서는 뿌리가 깊고 공감의 폭이 넓다. 특히 청년 남성들이 제 삶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모험주의와 극단주의의 토양은 비옥해진다. 앞으로 더 많은 '성재기 키즈'를 만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¹⁾

분명 현재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체제 하 주체들의 혐오감을 추동하고 증폭시킨다. 세넷이 말했듯이 "급소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조급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며, 노동자들은 남의 노동에 기생해서 먹고사는 신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²⁾ 즉, 현대 한국 사회에서 청년 남성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여성은 "남의 노동에 기생"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기생하는 자', '무임승차 자'로 쉽게 분류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단순히 "수평 혐오"로는 부족하다.

1) 전혜원·천관을 기자, "여성" 혐오하는 젊은 그대는? 『시사IN』 제392호, 2015.3.21., 17쪽.

2) 김현미, 김미연, 권수현 외 3명, 『친밀한 적』 이후, 2010, 41쪽.

포르노그래피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어렵다. 성적 재현물이 모두 포르노는 아니다. 얼마나 많이 벗었는가 포르노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이슬람권의 여성들은 얼굴만 드러내도 쉽게 성애화되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며, 우크라이나의 페멘(FEMEN) 운동가들의 토크리스는 오히려 여성의 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앞으로 '포르노적', '포르노그래피화' 등의 말을 사용할텐데, 여기서 포르노그래피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현재 가부장제의 지배적인 방식의 산물이자,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현상은 말하기 입이 아를 정도로 '보편적'인 일이다. 그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의 출처가 궁금하지 않은가? 그것들이 모두 포르노 산업이 만들어낸 상품들일 뿐일까?(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 사진도 그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한 남성과 연애를 하던 중 내 나체 사진을 그에게 보냈고, 그는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당시 내 남자친구와 나는 잘 사귀는 중이었다. 그는 평소에 즐겨 하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여성 혐오의 온상처럼 취급받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아니었다. 일베는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의 징후이지, 모든 여성 혐오의 책임을 일베에게 돌리는 것은 (경제적 결정론보다 훨씬 더) 기만이다. 이 커뮤니티의 일원들도 자신들을 아주 단호하게 일베와 구분했으며, 남자친구 역시 일베를 따위는 회화화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이 커뮤니티에는 소위 "조공팔" 문화가 있는데, 이는 이 커뮤니티만의 문화도 아니다. 커뮤니티의 멤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대신 대가로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공팔은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포르노그래피'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흔히 "19조공"(19세 미만 금지를 받을 만큼 '야한' 이미지를 '조공'으로 바친다는 뜻이다)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그는 질문을 한다. 질문은 별 거 없다. "이 파란 스웨터가 더 좋을까요, 빨간 스웨터가 더 좋을까요?" 하는 식이다. 그러면 그 게시물은 사진 섹터에 조회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 조공팔을 감상하며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을 달아준다.

질문이 목적인가, 포르노그래피의 공유가 목적인가? 이 조공팔 문화는 둘 다를 충족시킨다. 조공팔을 이용해 자신의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광고'를 하는 이 모습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끝없이 전시하며 상품을 팔아치우는 이 자본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때, 상품과 함께 여성 역시 상품이 된다. 또한 조공팔 문화는 포르노그래피를 공유하며 서로 감상 댓글을 다는, 남성이 주류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의 몸은 "조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신화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재산이다. 그들은 서로 포르노그래피를 공유하며 즐겁게 남성 연대감을 표현한다. 인터넷 밖에서도 우리는 '섹스'만 나오면 키득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섹드립'이라는 유행어가 보여주듯 성적인 것은 회화화되며 함께 웃지 않는 자는 고리타분한 "씹선비"가 된다. 섹드립이 '음담패설'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그것과 다른 점은 이 집단적인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뻔뻔해졌다는 점이다. 음담패설은 음란하고 도덕을 거스르는 말이었다. "드립"은 유쾌하며 "병맛"이고 이 시대 청년다운 발랄함(?)이 있다. 이 '자유주의적' 청년들은 성 엄숙주의가 클라지 못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쿨한 농담이 성폭력인 줄은 모른다.

이들은 웃지 않는 자에 대해 권력 우위를 점한다. "잘못된 사회에서의 웃음은 행복을 공격하는 질병으로서 행복을 그러한 사회의 무가치한 총체성 속으로 끌어들이고, 무엇이든 웃는다는 것은 그것을 비웃는다는 것이다. (...) 집단적인 웃음은 인류를 패러디한다. 그러한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은 다수를 든든한 뒷배경으로 살아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회생시키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즐거움에 자신을 내맡기는 단자다. 그러한 조화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곡된 모습의 연대감이다."¹⁰

이 남성 연대감은 결코 '자연스러운' 성욕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지들만이 존재하고 생산되고 소비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뉴욕의 포르노 극장에 들어가 보라. 거기서 당신은 악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덕의 생생한 그림들을 만난다. 사술에 묶여 채찍질당하는 익명의 개인이 자신의 쾌락을 마음껏 풀 수 있는 것은 이 쾌락이 사도-마조히스트의 판에 박힌(케케묵은) 이미지와 합류할 때뿐이다. 바로 이것이 커다란 변모이다. 이러한 전복은 윤리적인 문제를 반드시 제기한다. 이미지가 비도덕적이고 반종교적이거나 악마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화되어 갈등·욕망의 인간 세계를 예시한다는 구실 아래 이 세계를 완전히 탈현실화시키기 때문이다."¹¹

'자연스러운' 성욕이란 존재할까? 자연스러운 성욕이라는 말이 전제하는 현실이란 존재하는가? 성욕은 이미 이미지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포르노적 이미지는 '일반'적이라, 포르노그래피 소비는 마치 자연스럽고 건전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에 따른 세계의

탈현실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내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조차 "조공"하는 행태일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당시 내게 아무런 악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 다음 말이 압권이다. "널 자랑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감탄하면 내가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일루즈가 말하듯, 남성은 서로 성 접대를 선물하면서 남성 연대감을 강화시켜왔다. 현대 사회에서 성 접대는 성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누구도 기쁘게 자신의 애인이나 아내를 접대용으로 쓰지 않는다. 내가 조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분명 사진이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사진에 내 얼굴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나는, 안다는 것이다. '나만' 안다는 것이다.

그는 나와 사귄 때 나더러 소위 '야한' 옷을 입지 말도록 하곤 했다. 나를 출구거리는 다른 남성들의 시선에 화를 내곤 했다. 그런데 그는 왜 인터넷에서 수많은 다른 남성들의 시선에 내가 노출되는 것은 기꺼이 바랐던 것일까?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남성의 재산이므로, 자신의 것인지 다른 남성이 알 때는 자신의 재산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 없는 사진은 그 여성의 몸이 어느 남성의 소유임을 드러내지 않기에 상관이 없다. 남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여성의 몸을 남성 연대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자기네끼리 우위를 다투는 수단으로 섹스를 활용한다.¹² 이 분열증적이며 자기기만적인 남성은 여성의 몸을 전락시키면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한다.

이때 나는 내 존재가 폭력적으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다. 주체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나는 나의 존재는 남성의 소유에 근거할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남성의 편의에 따라 지켜줘야 하는 가부장적 재산('성녀')/남성 연대감의 대상('창녀')사이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다. 많은 여성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달리 (섹시하지만 '싸 보이'지 않는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 둘의 구분은 몹시 유동적이다. 분절된 이미지라 할지라도 나에게 나의 몸은 나다. 나의 상상 속에서 나는 하나의 주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여성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많은 남성들이 분개할지도 모르나, 포르노그래피 소비와 공유, 성 구매와 성 접대, 나아가 강간과 집단 강간은 본질적으로 같다. 포르노그래피를 소비하는 남성은 반드시 강간을 한다는 일직선적인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을 남성성 획득, 남성 권력 추장을 위한 도구, 재산, 상품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나는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은, 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었다. 즉, '음란물' 유포 죄였다. 애초에 내 합의 하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렇게 내 사진은 '음란물'이 되었다. 심지어 경찰은 내 사진을 보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 사진은 속옷 모델들도 찍는다."며, "왜 그렇게 이 남자를 미워해요? 바람이라도 피웠어요?" 나는 4,50대 남성들로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저는 속옷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전히 이 사진을 올려서 미운 거라고요. 다른 건 아무 상관없다고요."라고, 울컥해서는 대답했다. 경찰관의 말에서 우리는 첫째, 여성의 몸을 소비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여성의 피해 정도는 남성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는(소위 속옷 모델도 찍는 정도라는 '노골성'을 경찰이 판단하고, 얼마나 남자 눈에 노골적인지에 따라 여성의 '미움'의 정도마저 강요된다)는 것, 셋째, 여성이 남성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은 남성에게 '버림받았을 때'라는 지배적인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시혜적으로 내게 제안했다.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나와 섹스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일 수 있으니 굳이 고소하실 거면 그걸로 고소하시라고.

이것이 지배적인 남성의 입장이며, 국가의 법이다. 법이 규정하는 '보호할만한 여성'은 정조 관념에 투철한 여성이다.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남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성은 정숙한 여성 아니면 '음란물'이다. 음란물 유포가 죄가 되는 것은 '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더럽히기 때문이지, 포르노그래피가 되어버린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4. 피해자화를 통한 군림

나는 한동안 자기 모델감을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내가 나를 성적 주체라고 생각하고 했던 바로 그 행동을 내가

8)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1, 동년, 1999, 280쪽

9) 나는 '자유'라는 근(현)대적 가치를 긍정한다. 그러나 이 자유는 대체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 자유의 주체는 누구일까? 특히나 지금-여기의 '자유'를 살핀다면 말이다.

10) 테오도르 아도르노·막스 호르크하이머,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1, 213-214쪽

11) 롤랑 바르트, 김용권 역, 『밝은 방』, 문문선, 2006

12) 에바 일루즈, 김희삼 역, 『사랑은 왜 아픈가』, 들레게, 2013, 149쪽

사랑하던 이가 내게 폭력으로 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의 발현이었다. 차갑고 저열한, 여성의 본질된 몸이 남성들의 시선 하에서 점수가 매겨지는 매우 '합리적'인 영역에 던져지는 경험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게 가르쳐주었다.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세미나에서 내가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한 남성은 "배려 없는 남성분"을 만났다고 나의 "온이 없음"을 위로해주었다. 과연 그럴까? 그 남성의 발언은 내 경험이 단순히 온이 없었던 일이 아님을 되레 증명해준다. 남성의 젠더 폭력이 "배려 없음"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은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현실이 탈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젠더 체계가 이 남성에게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최근 내가 몸담은 동아리에서는 남자 후배가 의자를 집어던지며 그를 지도하던 여자 선배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이를 젠더 폭력으로 판단했다. 폭력은 항상 약자만을 폭력의 대상으로 정확히 골라낸다. 남자 후배의 폭력은 권위도 없는 '여자' 선배가 '권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남성 권력의 주장(징벌)이었다. (부담함을 느꼈다면, 항의는 말로 하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굳이 그는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폭력을 만류하는 목소리에도 씩씩거리며 그녀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듯이 결코 그것이 젠더 폭력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찌됐든" 폭력은 잘못이니 잘못을 인정하며, "어린" 행동을 해 "동아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즐겨 하는 자신의(그리고 남성 연대의) "배려 없음", "어린" 등 미숙함을 내세우는 서사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최근 장동민을 비롯한 용달생과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송민호의 사과를 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개그가, 또는 랩 가사가) 더 자극적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자극적'이라서가 아니라, 여성 혐오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 그들의 가해자 서사는 '노골적'이면 음란물이라는,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선정성과 음란성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젠더 폭력은 탈각시키는) 남성 중심적 논리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은 곧잘 자기가 속한 공적 영역, '집단'에 배를 끼친 사실을 죄송해한다. 정희진이 지적했듯,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 남성 연대에 죄책감을 표한다. "남자(사회적) 망신"을 시켰다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때마다 남성들이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다며 도에 지나치게 분개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멘스플레인'의 주체들은 여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남성 연대에서 배제당하는 상상 또한 하기조차 싫은 것이다. 남성 연대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싶을 땐 미성숙한 '실수'라며 감싸고, 옹호하기에 너무 심할 땐 가해자에게서 남성 권력을 빼앗아 패배자/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다. '파렴치한 성 범죄자'들을 소리 높여 비난하는 남성이 반드시 성폭력 문제나 이 사회의 젠더 위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많을 것이다. "나는 남성이지만 달라. 재들은 남성이 아니라 쓰레기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파시즘을 그저 집단주의의 하나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망과 배제 당함에 대한 불안감은 파시즘적 주체들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다. 그리고 그 집단은 언제나 남성 연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파시즘은 특정 정치 체계라기보다 경향이고 징후다. 운동으로서 파시즘은 증오의 운동이고, 그 기저에는 남성적 판타지가 있다.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남성적 판타지와 동지애에 기반한다는 연구는 사르트르, 아도르노, 라이히 등이 주장한 매우 고전적인 연구다.

<시사IN>의 기사로 돌아가 보자. <시사IN>이 말하는 여성 혐오의 주체 '청년 남성'들은 그들의 여성 혐오를 강자의 짓누름이 아닌 '약자의 저항'으로 규정한다. 페미니스트가 싫다며 IS로 간 김 군의 트위터 계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However, the current era is the era that male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I hate feminist so I like the isis." 그가 느끼기에도 현대는 남성이 역차별 당하는 시대다.

파시즘은 '공포와 위기의 정치학'이다. 권명아가 지적하듯, 파시즘은 "스스로를 여성화하면서 사회의 오염, 침투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강건한 사회를 구축하는 남성성에 대해 강조함과 더불어 스스로를 약자/여성의 위치와 동일화함으로써 이러한 절멸의 기획을 정당화"하는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남성 주체가 자기 부정(여성성 배제/혐오)을 통해 남성성을 획득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시사IN>의 기사는 여성 혐오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약자를 짓누르는 쾌감'을 추구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여성 혐오를 '약자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 이유였다. 그러나 강자/약자라는 정체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들의 경우 혼종되어 있다. 밈과 올라서려는 욕망이 강자의 것인가 약자의 것인가? 여성 혐오를 통해 남성 권력을 주장하는 것은 본디부터 모순적이라 자기기만적인 것이다. '여성'

혐오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려 들고, 역차별 운운하며 그것을 정당화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의 여신도들에서 펜테우스는 파시즘의 심리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남성이자 도시 국가의 왕으로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 신도들을 모조리 죽이려 든다. 말했듯이 이는 통제되지 않는 여성(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에서 비롯했다. 이때 여성은 디오니소스 신도들의 모습이 보여주듯, 인간으로서 여성 주체들이 아니다. 말했듯이 디오니소스는 '여성적'이었다. 그리고 먼 '동양'에서 왔다. 이는 라이히가 지적했듯, 뒤섞이는 것에 대한 공포다. 파시즘의 심리학에서는 언제나 뒤섞이는 것에 대한 공포와 순결주의, 혼혈적·잡종적인 것에 대한 공포와 혈통주의, '무정부주의적 상태'에 대한 불안과 질서에 대한 강박을 볼 수 있다.¹³⁾ 디오니소스 자체가 남성/여성의 구분을 흐트러뜨리며, 디오니소스 신도들의 광기는 그야말로 '무정부주의적 상태'에 대한 불안을 예시한다. 특히 '여장'을 하고 찢겨 죽는 펜테우스 자신의 모습이 파시즘이 작동하게끔 하는 공포다.

여성을 포르노그래피화 하는 것과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여성 혐오의 주체들과 포르노 소비자들 같은 자들임을 경험한다. 두 가지 모두 여성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간일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여성의 포르노그래피화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 소비되며, 또한 남성-국가 권력의 규제 대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던가. 그녀는 소비되는 동시에 더러운 음란물이다.

나는 최근 '페미니치', '페미파쇼'라는 말을 접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페미니치, 또는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전투적인 여성주의, 남녀 역차별론자, 전투적인 여성우월주의자 및 그와 같은 견해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성혐오와 종교(주로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 남녀 역차별론,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된다는 사상까지도 포함된다. 페미니스트(Feminist)와 나치(Nazi)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다른 페미니즘들이 단순한 남녀평등주의 사상이라면 페미니치는 이를 넘어서 남성을 말살해야 할 적대적 존재로 간주한다.' 라고 한다.

'김치녀'와 '꿀페미'를 넘어 페미니치라는 말의 존재가 바로 한국 사회의 파시즘의 징후다. 호명의 언어는 항상 자기 지시적이다.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 아닌 남성성에 위협적인 페미니즘은 '남성을 말살해야 할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므로, 여성 혐오는 정당화된다. 나치가 유대인은 독일을 오염시키는 척이므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듯이 말이다. 위키피디아가 중립적인 양 저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김태훈이 무뇌아적 페미니스트가 IS보다 위험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사회에서 피해자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좋은 전략인 듯하다.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부주의한 자신의 탓이라 지탄받지만, 남성은 페미니즘의 존재만으로 피해자화 할 수 있다. 천연하치면, 나무 위키에서 페미니치의 대표 격인 인물은 우에노 치즈코다. '박코스'의 여신도들이 보여주듯, 여성성은 포르노적이다. 소비되면서도 통제되어야 한다. 디오니소스 신도들이 보여주는 광기는 남성이 페미니스트에게 투사하는 이미지와 맞닿아있다. "보고 싶"으면서도 "불쾌한" 여성성에 대한 '남성'다운 욕망/혐오 때문에 그는 디오니소스에게 속았다. 통제를 벗어난 여성성(타자성)의 광기에 그는 죽었다. 그를 '왕'에서 전략시키는 이 내부의 적에 대한 공포는 펜테우스의 마지막을 통해 남성-국가 권력의 피해자화를 정당화한다. 즉 남성의 위기감에 찬 피해자화는 유리한 남성의 사회적 조건을 반영할 뿐이다.

"독일인들이 예측된 상태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반쯤만 맞는 말이다. 독일인들은 또 다른, 더 나쁜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이는 무서운 만큼 위험한 상태이다. 그들은 환상의 나라에서 마약에 취한 삶을 산다. 그들은 끔찍스럽게 행복하고 끔찍스럽게 위신을 떨어뜨린다. 지나치게 자기만족에 빠져 있고 무한히 경멸스럽다. 너무나 자부심 넘치면서도 비열하고 잔혹하다. 그들은 사실 늑을 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높은 산에 오르고 있다고 착각한다."¹⁴⁾

위의 인용문은 나치 집권 하의 독일인들에 대한 글이다. 불행히도 나는 현대 사회의 대중 심리와 저 파시즘의 대중 심리가 과연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저 에우리피데스의 극에서, 우리는 파시즘의 두 모습을 모두 발견한다. 펜테우스적인 독재적 국가 폭력과 디오니소스적인 광란의 주이상스¹⁵⁾를. 위 인용문에서 발견하듯이 펜테우스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동지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타자로서의 '여성성', 투사되는 집단적인 광기 등은 바로 파시즘적 남성-국가 권력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에 존재했던 집단적 유대감은 내부의 적을 계속 만들어 냄으로써 지탱되었다. 동성애자, 집시, 유대인 등은 그 이전부터 받아 온 차별에 더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는 나치 체제가 만든 도취적 집단 행복감에 꼭 필요한 요소였다."¹⁶⁾

13) 멘스플레인(mansplain)은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을 결합한 단어로,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체하며 어쨌든 대하듯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1][2][3] <애플리케이션>의 필리 로스먼은 멘스플레인을 "흔히 남자가 여자에게, 설명을 듣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4] 레베카 솔닛은 일부 남성의 "과잉 확신과 무지함"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속한다고 보았다.[5] - 위키백과

14)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44쪽

15) 권명아, 위의 책, 220쪽

16) 권명아, 위의 책, 54쪽

위 인용문이 보여주듯, 파시즘적 남성-국가라는 내부의 적을 계속 만들어 냄으로써만 지탱 가능하다. 적이 존재하고, 그것을 절멸시킴으로써 존재하는 파시즘적 남성-국가라는 적을 그 자신이 계속 발명해내야 한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의 '남성'들이 도취적 집단 행복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을 전유하며 '남성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자명하다. 음란물과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되새겨보자. 나는 한 인간이지만 남성의 시선에서 음란물이기도, 페미니즘이기도 하다. 나라는 한 신체를 가로지르는 소비/통제/절멸의 칼날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을 파시즘의 징후로 읽어내는 것이 과장인가? 파시즘이 징후, 경향에서부터 중오의 운동으로, 나아가 정치 체제의 확립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간다면, 한국 사회의 파시즘은 경향과 운동 사이에 있는 것 같다. 남성 주체의 위기를 핑계 삼아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라면, 미즈의 말마따나 그 사회는 "제국주의나 파시즘도 수용할 것이 아니겠는가?"

글을 시작하며, 나는 여성 혐오를 경제적 결정론이라는 렌즈로 바라보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나 역시 살기 팍팍해지면 사람들이 혐악해지는 일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력감을 느끼는 주체들은 자신의 무력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권력을 주장하고 싶을 터다. 그러나 무력감을 잊기 위해 누군가를 밟아야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열하다. "태일이 오는데 조개나 줌고 있다."는 말은,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배제하고 있다. 자신을 조개라고 생각지 않는 자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라는 이름에 페미니즘의 양념을 치는 것, 여성 운동을 계급투쟁의 결과지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은 계급적 타자이기도, 성적 타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희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성이 계급적 타자로 일주일에 3일 살고, 성적 타자로 4일 사는 것이 아니다. 남성의 분류대로 여성의 삶을 분리하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느냐에 따라 남성 권력이 인정하고 하지 않는 삶이 여성의 삶인가?

여성을 "음란물"과 "페미니즘"으로 만들어 남성 권력을 주장하고 그 권력에 기반해 남성 연대를 강화시키는 현 사회의 매커니즘은 파시즘의 작동에 매우 적합하다. 여성 혐오가 파시즘으로까지 호명되지 못하고 그저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마는 것은, 여성이 희생양으로 적합하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공동체는 희생당해도 될 만한 자(소수자, 타자)를 골라 희생양으로 삼고, 희생 제의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해왔다. 그것이 폭력이 성스러운 것으로 둔갑하는 인간의 역사다. 여성의 '희생'(주체의 말살)은 모성이나 어머니 하면서 항상 성스럽게 여겨지지 않은가? 나치가 그토록 모성을 강조하는 선전에 힘입은 것이 우연일까. 지하철 입산부 배려석이 "내일의 주인공의 자리"라는 말은 우연일까? 여성 자신이 임신 때문에 고통을 겪어서가 아니라, "내일의 주인공"(당연히 아들이다. 딸은 또 "내일의 주인공"을 품을 그릇이 될 테니까.)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녀는 배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재생산 도구이거나 했기 때문에 나치 하에서도 학살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전시에는 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성들을 강간한다. 그것이 남성-국가의 남성성을 크게 훼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일단 내게 가해지는 폭력이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심지어 성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한껏 과장할 생각이다. 페미니스트에게 페미파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부르는 그 자신이 파쇼이기(파쇼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게 파시즘의 대중 심리가 아니고 뭔가. 그리고 이 페미파쇼를 음란물로 소비하고 규제하는 건 또 뭔가? 내 몸은 다른 방식으로 내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에게 대한 저항의 장이다. 다음의 아도르노의 말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즐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고통을 목격할 때조차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즐기는 근저에 있는 것은 무력감이다. 즐기는 사실 도피다. 그러나 그 도피는 일반적으로 애기되듯 잘못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마지막 남아 있는 저항 의식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오락이 약속해주고 있는 해방이란 '부정성'을 의미하는 사유로부터의 해방이다.20)

내 전 남자친구의 오락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과, 아도르노로부터 이 글은 촉발되었다. 여성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는 자는 여성을 음란물로 즐긴다. 무력감은 남성 주체는 권력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전제가 필수적인 정동이다. 권력 주장은 타자의 고통 따위는, 말 그대로 "목격할 때조차" 있어야 가능하다. 타자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타자를 음란물로 즐기며, 그 즐거움을 통한 남성 권력을 집단이

나누며 그 권력에 도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시즘적일 터다. 고통을 목격할 때조차 고통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가로지르는 폭력을 먼저, 목격하자.

17) 존 그레이, 김승진 역, 『동물들의 침묵』 이후, 2014, 65쪽

18) 이 글에서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 여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테리 이글턴, 『성스러운 테러』(서정은 역, 생각의 나무, 2007)에서의 논의에 빚을 지고 있다. 이글턴은 남성성의 틀로 작품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석을 정신분석학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논의로 이끌어갔다.

19) 그레이, 위의 책, 66쪽

기획단 후기

분가피

아주 친밀한 사람하고만 밀어처럼, 은어처럼 페미니즘을 이야기해왔다. 나의 정치와 윤리가 피상적인 여성의 권리청원으로 임하는 게 노여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미니스트'라는 건 거의 오명 아닌가. 오빠 같은 '시시한' 문제에 달려드는 '농담'도 모르는 바보. 나는 그 오해를 감당하기 싫어,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어쩌다 시간을 후진하여 (비학부생 신분으로) 세다페를 했다. 페미니즘이 읽고, 다시 써내는 텍스트는 도리없이 우리의 삶이므로, 세미나란 곧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십여 명의 낯선 사람들과 둘러앉아 낯 선 이야기를 나누거나 폭력 경험을 들으며 나는 당황했고 쭈뼛뼛했다. 위로를 한답시고 내 불행들 공연히 말해놓고, 수치심과 스스로의 서투름을 한탄하며 몇 날을 발길질했던 적도 있다.

혼잣말에 익숙한 내게 여럿을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 세다페를 통과 의례로, 나는 좀 덜 겁먹으며 말하고, 행동하려 한다. (물화하지 않고, 물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페미니스트이고자 한다.

정규

인터넷에서 악명 높던(?) 페미니스트들을 현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여서 세미나 시작 전에는 긴장했다. 혹시 내가 남자라고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꼬투리 잡고 탈탈 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좋은 분이었고 페미니즘이 남자를 배척하지 않는 학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얼떨결에 발제까지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좋아서, 나도 이제 페미니스트가 된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좋은 기억만 가져가게 되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슈가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 폭력의 시대를 살며 좌절하던 중 세다페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네요. 언젠가부터 정치성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지낼 수 있길.

헤원

참여를 (많이)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참여하는 동안에는 즐거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진솔하게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열릴 포럼에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용현

논쟁적인 입장에 있었음에도 개방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 좋았고,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사려 깊은 배려와 관심 덕에 억압 없고 건전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성주의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던 걸 몸으로 느꼈다. 또 폭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즐거웠고 보람 있었다. 마무리 잘하고 싶다.

주혜영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할 일이 많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난 2달간 이야기하며 얻었던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하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포럼 기획단은 저를 둘러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오갔던 많은 대화를 통해 저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요, 가벼운 대화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무거운 이야기 속에도 웃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다페는 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연세대 녹색당 허규

전역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졸업을 앞둔 07학번에게 이번 여름은 방학의 시기였습니다. 지난여름을 돌이켜보니 그래도 꾸준히 나갔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세미나였습니다. 복학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백양로에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멋져서 쳐다봤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고 총여회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단에 함께 하였습니다. 일화성의 강연과 세미나가 아니라, 한 달에 걸쳐서, 매주 두 번의 페미니즘 세미나를 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전에도 페미니즘을 응원하고 지지했지만,
이번 세미나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지적
자극과 가슴에 와 닿은 지점들이 충만했습니다.
학내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과의 교류도
즐거웠습니다. 저도 다른 기획단원들에게 좋은 인연으로
남고 싶네요.

아쉽게도 개인적 사정으로 포럼팀 기획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한
포럼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획단 뒤물에도 기대됩니다.
저는 포럼 내내 기획단원 분들에게 '총여학생회'가
내년에도 이어져서 '세다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여성주의를 공부할수록,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페미니즘이 필요한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대하고
결사하는 것도 절실합니다.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 여성도
지금의 젠더 구조와 문화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수의 여성, 기존의 젠더 구조와 문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걸음일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여기의 총여학생회, 세다페가
지니는 의미는 이런 게 아닐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던
아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은, 8번의 세미나의 지적 자극 못지않게
소중하게 다가온 점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옵니다. 학생사회도 새로운 변화가 오겠죠.
세다페의 추억이 연세대학교에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재효

몇 주간의 세미나가 끝나고, 세다페를 되돌아봅니다.
후기를 쓰자니 사실 너무 많이 빠져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글을 끄적여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세미나에 함께 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삶의 상처를
스스로 나누어주고, 또 공감하고 또 받았던 시간들.
감사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함께 나눠주셨던 분들의 용기가 감사하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실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여성주의를 고민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에게서 서투른 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던 나의 모습을,
말로만 '존중'하고 '평등'했던 나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부장' 옷은 별명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마음들을 곱씹으며 누군가 용기 내 꺼내놓은
상처,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발견했던 나 자신의
상처를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했던 나의 모습에 작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들, 내가 나의 존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 어렵지만 '함께' 바뀌어나가야겠다.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나아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네요... 거창한 이야기 말고.....!
아무튼, 남은 포럼 기간 동안은 좀 더 행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네요!

'평등'이란 무엇이고, 또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대우'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 바로 세다페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마무리하며,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특히 선뜻 나서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다시
봄' 총여학생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길에서 오래오래 만납시다:)세다페 화이팅!

예녹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페미니즘에 막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세다페를
만나 다행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즐거움을 매주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민정

사람과 지식을 포함해 긍정적인 새로움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군요!

다현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며 학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당하다 피해 당사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총여가 있을 때 사건이 터져서 운이
좋네요." 너무 속상해 삼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누군가의 피해를 회복하고, 점검하고, 함께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게 '운'에
달린 것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성평등이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면. 어떤 성별이든, 어떤 성 정체성을
지녔든.

두 마디만 더. 고민 많고, 견고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만나 그/너들의 경험을 들으면 좋은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좋은 사람책을 잔뜩 읽을 수 있었던
올해 여름.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꾸키

아직도 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했던 남녀체제에
길든 여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역사가 그랬듯 현재의 체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원하는 요구들이 모여 만든 사회 속에 당당한 여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다페는 그 길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함께했던 기획단분들은 배울 점이 참 많은 동지가
되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페미니즘을 끝까지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zero/하인

벌써 9월, 개강이네요. 으헿헿.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언제 또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평소에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던 얘기를 세다페에서 나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8월의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뜨겁게 불태운 모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막상 끝이라니 아쉽네요. 참, 저의 로망 중 하나가 잡지(?)에 글도 내보고 필명도 써보는 건데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저의 부족함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흑...ㅠㅜ 부족한 글을 시간 내어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연

끝까지 활동명을 정하지 못한 주연입니다:) 요즘한국에서 페미니즘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참여하게 된 이번 포럼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고 가네요. 제가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반추해보는 습관을 돌이게 되었어요. 매체팀으로서 글을 준비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 같아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 세다페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곰자

좀 오글거리는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전 뭔가 고결한 인간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이 깊고 넓을수록 그렇게 된다고 믿으니까요. 페미니즘은 그런 의미에서 참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스치듯 지나던 것들에 다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그런 점에서요.

이번 세미나, 매체팀 활동으로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좀 더 고결함에 한 발짝 다가간 거 같아 기쁘네요! 다들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은수

세미나도 유익했고 뒤돌아도 더더욱 유익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페미니즘 공부를 해보는 기회였는데 같이 세미나 했던 분들께 더 많은 것을 배웠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했던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너무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민

페미니즘에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와중에 이 기획단에 관한 홍보 배너를 봤고, 세미나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우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고, 세칙을 먼저 정하는 등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한편으로는 내가 알바 때문에 참여를 자주 못 해, 아직은 덜 친해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다른 집단에서는 페미니즘을 조금만 주장해도 반론이 거셌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인 점도 좋았다. 덕분에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 이상을 살펴볼게 되었고, 아직 내가 공부나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해주고, 방향을 함께 보내준 이 세미나에 고마움을 느낀다.

베짱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짱이' 우화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늘지 않고 성실하게 겨울을 준비한 개미는 모아 둔 양식들로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매일 음악을 즐기며 놀았던 베짱이는 결국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추위와 배고픔에 개미를 찾아가 구걸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 교훈이 크게 맘에 와 닿았었는데, 이제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베짱이의 삶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개미처럼 일해도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는 개미 회사원과 건물주 베짱이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표현한 현대판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는 현실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필명을 베짱이로 한 것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흥겹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려운 세상살이 베짱이게 살고 싶다는 이중적인 의미랄까요.

세.다.페. 기획단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오티 당일에 등록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고자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의 실마리도 찾은 것 같습니다.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글로 풀었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페미니즘이 제가 가진 고민의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필요한 관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단을 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공간이었다는 점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글이 잘 안 써져서 혼자 고통스러웠 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산

빌헬름 게나치노의 소설 <이날을 위한 우산>에서 필명을 따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자기 자신이 온몸으로 비를 맞는 우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설이라고 그러더군요.

페미니즘이, 그리고 언젠가는 제 글이 이날을 위한 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빗속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 날, 함께 비를 맞으면서도 누군가의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그리고 이 세미나가, 이 공간이 제게는 우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혁규

안녕하세요. 방학 시작하면서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이하 세다페) 활동이 시작됐고 마지막 날 이렇게 후기를 작성하고 있으니 이번 방학은 세다페와 함께 가득 채운 것 같아요.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고 도움도 많이 되고 싶었던(그런지는 모르겠지만 ㅠㅜ)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참여 신청을 할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서 저는 많이 지쳐있었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무기력증과 달리 그 이유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제 몸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생활이 크게 달라졌던 것은 아니지만, 심적으로 건디기가 쉽지 않았어요. 때문에 저는 방학 동안 스스로와의 화해가 필요했고, 그 방법은 제게 있는 소수자성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제 안에서 곱씹어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제

생각을 나누는 것에는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7월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혁규씨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혁규씨 생각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함께 의견을 나눠봐요!" 이 말에 저는 세미나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얻었구나 하는 고마움과 함께 세미나에 제가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생각을 나눠보자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학의 마지막 날인 지금, 저는 저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물론 방학 동안 세다페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고마웠던 시간이었어요. 어떤 공간보다 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준, 그리고 많은 배움을 준 공간이었어요. 막상 이렇게 끝나가니 많이 아쉽네요. ㅠ 남은 포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브

세다페를 만나서 세미나에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는 것도 경험도 부족해서 세미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도, 제가 쓴 글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지금은 한발 아가페미인 저도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다페가 그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XD

각색

함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학교 생활하면서 처음 가졌던 거 같네요. 그리 길지 않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같이 때로는 비슷하게 때로는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각자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길.

영기

즐거웠고, 아쉽다. 페미니즘을 계속 공부해야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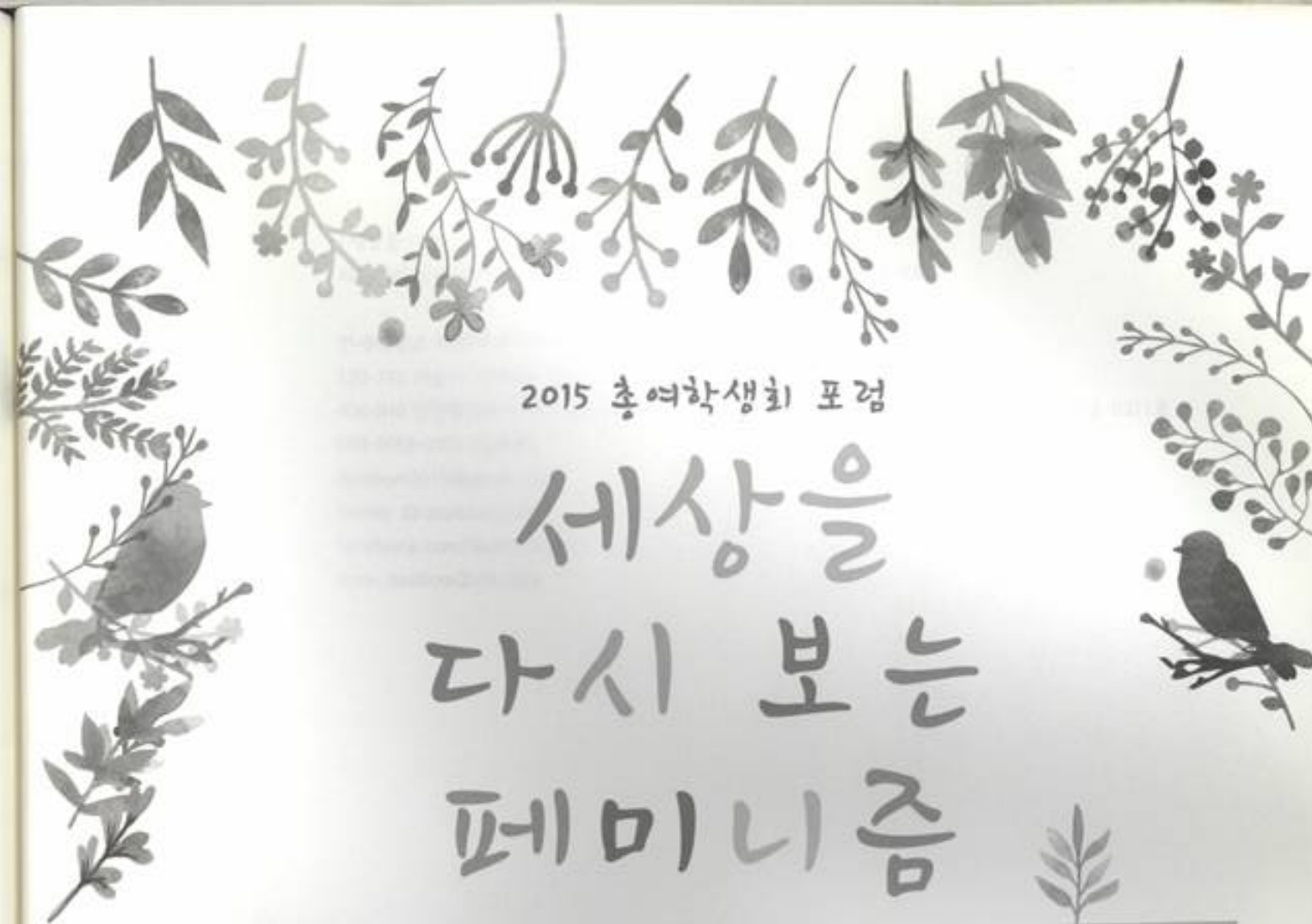
느꼈고, 그 공부는 꼭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요새 읽는 책의 저자 권명이 씨의 말을 빌려 적는다. "실험은 실패로 귀결된다. 그게 현실이다. 다만 그 현실에 지지 않을 힘을 잃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바랄 뿐이다." 그러니 계속 함께 공부합시다.

혜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 지금 기록해두지 않으면 또 금세 까먹을 텐데도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낯은 표현이라고 해도 적어두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간단하게나마 남겨둘래요. 저는 총여학생회를 하고 또 세다페 기획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든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말로는 절대 다 표현되지 않지만, 달리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네요.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그래서 정말 덧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우린 분명 다 잊어버릴 거예요. 가장 강렬했던 감정마저도 전혀 추측되지 않는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젊음의 한가운데에서 누렸던 시간의 낭비라는 특권도 금세 생존에 빼앗기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것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를 보여주신 모든 사람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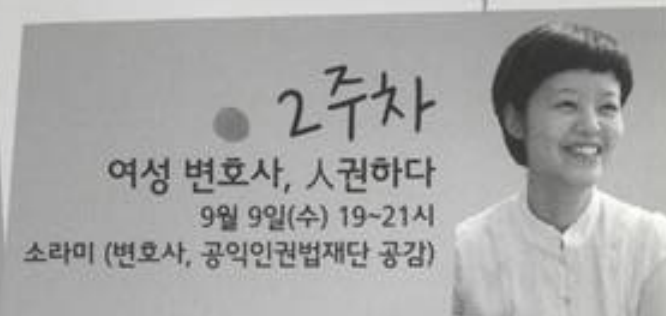
2015 총여학생회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1주차

페미니즘, 군대를 말하다
9월 3일(목) 19~21시
김엘리 (여성학자)



2주차

여성 변호사, 인권하다
9월 9일(수) 19~21시
소라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주차

퀴어 페미니즘, 혐오를 말하다
9월 16일(수) 19~21시
시우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원)



4주차

페미니즘, 대학생에 답하다
9월 23일(수) 19:30~21:30
전희경 (페미니스트 연구자/활동가)

연세대학교 논지당(본관 옆) 세미나실

2015학년도 페미니즘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봄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공식 연락처

010.5059.0324

www.facebook.com/dasibom2015

dasibom2015@gmail.com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매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글쓴이 개인의 이메일이나 총여학생회로 연락주세요.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 주소 및 연락처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324호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지하 층 B311호
010-5059-0324 (업무폰)
dasibom2015@gmail.com
twitter @dasibom2015
facebook.com/dasibom2015
www.dasibom2015.com